

禮山 文化

예산문화

YESAN CULTURAL CENTER



천연
한글
어른의
도움

信愛忍齋
비쁘고 사랑하고 참으면 화평하다
乙未冬 輝岩 金能式

즐거워
재미져
행복해



瑞氣滿堂
상서로움 가득 차서
乙未年 瑞氣 天祥 金能式



行遠必自邇
登高必自卑
乙未仲冬 德守 金在國



尊德
性道
周學

福齋
화복환가경
초상



謙先尊欲
乙未年 謙先 尊欲 金能式



땅의 베타어나면 또 두가량. 제이 나이지 반느시골을 두곡 안을 따지라기 베타이 이성기면
마땅히 즐겨야만 하는 것이니 한말의 슬미라 도발아 글고 이.스을 또 오나 켜글은 나시
오지 않고 하루에 베타이 두번 웃기는 이려는 것 때를 늘리지 말고 마땅히 켜야만 하는
것이니 베타이를 사함을 기라 러저 안는 다. 드 영 명 시를 무익이 베타이 영 립



백기
乙未年 白基 金能式



桐千年老恒藏曲
梅一生寒不賣香
雲牋闊展醉吟遲草
樹陰濃雨滴時起把
如椽盈握筆沛然揮
酒墨淋漓
錄泰山先生詩
香傑 張倫撰



사랑이
꽃
이름다워



이것이
가장
가장
가장





Cover story

- 표지그림 | 2015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회원 작품 모음
- 표제 | 석봉 고봉주

Contents

Page

4 · 발간사

5 · 권두시

6 · 충남학 인문강좌

6 또 하나의 백제, 예산 - 윤 용 혁

13 충남유학의 학맥과 학풍 - 황 의 동

27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충남 예산 - 김 갑 동

40 지역컬럼

문묘제도의 연구 - 송 재 철

42 선진문화연수 답사기

“북해도를 다녀와서” - 박 세 진

50 제 26회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 수상작

52 제 3회 자암 김구 전국 서예대전 수상작

54 2015 예산문화원 사업 이모저모



2015년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고 1,100년 예산의 젓줄인 무한천을 머금고 1월1일 제9회 예당호 해맞이를 통해 대망의 2016년 한해의 빛을 맞이하였습니다. 2015년은 호서지역의 유례없는 가을 가뭄으로 걱정이 컸지만 예산문화원은 60여년의 역사에서 무엇보다도 알찬 한해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를 통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의 창구로서 예산문화원의 역할에 역대 최대인 1,300여명의 문화회원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셨고, 건물이 협소하여 숙원사업이었던 예산문화원 원사의 증축을 위한 설계가 확정되어 2016년에는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지역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2015년의 가장 수확이자 기쁨입니다. 아울러 제1회 청소년문화축제를 통해 자칫 소외되기 쉬운 지역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폭을 넓히는 기반을 조성 하였고 대보름 달집축제와 지역학으로서 충남학 인문학 강좌를 신규사업으로 진행 하였고 예산읍 추사의 거리에 추사학당을 신규 운영하여 평생교육차원의 문화학교 수요요구에 충족해 나가는 발판을 확대 했습니다. 이밖에도 19세기 여류시인인 「남정일헌」 관련 서적발간등 각종 향토 사료집 및 도록 편찬등 기존의 30여가지 사업을 수행하며 1,100년 예산문화 계승을 위한 첨병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다소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한 한해로 기억 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서예대회인 추사회호대회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 한글대회도 신설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2007년 11회를 마지막으로 축제통폐합 되었던 추사문화제를 복원하여 추사의 세계화를 위한 시금석을 놓아보고자 하오니 이러한 예산문화원의 예산문화 창조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속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한해도 예산문화원의 각종 문화 사업에 예산군민들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리며, 예산만의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발로 뛰는 문화행정을 통해 문화회원들 뿐만 아니라 출향인을 포함한 지역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는 정신문화창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2016년 우리지역 예산의 군민 모두의 행운과 만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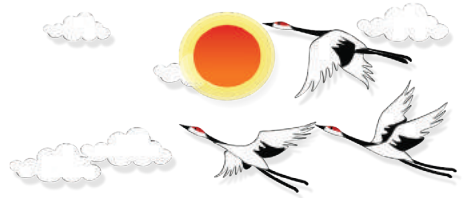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 시 운

해 오름의 노래

병신년 새해 박희영

가장 먼저 눈 뜨는 아침이 되게 하리라
 살 어름 든 들판보다
 함부로 물결치지 않는 호수보다
 알몸으로 눈뜨는 나무보다
 역사 앞에 떠오르는 당신을 먼저 보리라

동지 달 눈썹이 하얗게 기다렸던 청춘은
 휘어진 가슴으로 그 얼마나 아팠던가
 먼 곳에서 밀려오는 무거운 손짓에
 산 모퉁에 앉아 얼마나 울었던가
 아! 처절하게 절룩이던 지난밤이여



분노에 잠들지 않는 밤은 갔다
 눈썹을 검게 물들이고 우뚝 선 아침
 희망은 겨울을 깨치고 온 누리에 문은 연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자의 약속
 보라 저기 이글거리는 생명의 원천

천 가슴도 하나처럼 보듬고 보라
 천지에 휘날리는 붉은 꿈을 보라
 돌아서는 등 뒤로 산은 푸르게 웃고
 들도 강도 찬란히 은빛의 춤을 춘다
 해오름 아침 가슴이 타는 구나

또 하나의 백제, 예산

윤 용 혁
(공주대학교 교수)

추수가 끝난 후 형제가 자신의 벗가리를 몰래 형에게, 아우에게 서로 옮겨놓다가 결국 달밤에 마주친다는 감동적인 형제 우애 이야기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옛날 예산의 실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들 형제가 살던 마을이 예산에 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백제 부흥전쟁이 치열하였던 임존성의 마을이다.

차동고개 넘어, 금오산 자락의 예산으로 거처를 옮긴 지 10년이 넘었다. 그 10년 생활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백제를 본다.

까마귀가 전해준 소식

공주가 금강을 끼고 있다면, 예산은 무한천(삽교천)을 끼고 있다. 공주에 계룡산이 있지만, 예산에는 가야산이 있다. 금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무한천(삽교천)은 드물게도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이 내륙수로 주변에 예당평야의 넓은 들이 펼쳐져 풍요를 약속하고 있다.

예산은 원래 예산, 대흥, 덕산의 3개 군현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이 1914년 지방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예산군으로 통합된 것이다. 대흥은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으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은 댐이 건설되어 예당저수지의 넓은 물밭이 되고 말았다. 덕산은 수덕사와 가야산 등을 끼고 있으면서 온천타운의 관광지로서 발전하고 있다. 예산의 이름은 고려 건국 직후인 919년 태조 왕건에 의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혹자는 “예의의 고장이어서 예산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예의의 고장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름의 근원은 ‘오산’이라는 이름을 아화(雅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왕건은 후백제를 공략하는 전략으로서 예산을 내포지역 장악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였다.

‘예산’이라는 이름 이전, 기록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산의 이름은 오산(烏山)이다. 지금도 예산의 진산 이름이 금오산(金烏山)이다. ‘오산’에는 까마귀가 들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가장 오랜 상징은 까마귀이다. 예산 읍내 금오산 기슭의 작은 고찰 향천사에는 절을 처음 지으려 할 때 까마귀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절의 창사설화로 전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예산 역사의 개시에 대한 설화이다. 말하자면 예산의 ‘단군신화’라 할만한 이야기이다.

근년 예산군에서는 예산의 군조(郡鳥)를 까치에서 다른 새로 바꾸고자 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다. 새로운 예산의 군조로 나는 ‘까마귀’를 제안하였는데, 그러나 ‘까마귀’를 군조로 채택하는 것

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까마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었다. 까마귀가 부정적 의미를 많이 갖게 된 것은 아마 후대, 특히 조선시대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조선시대에도 까마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다음과 같은 박효관의 시조에서 보듯이, 까마귀는 효의 상징이었다.
 뉘라서 가마귀를 검고 흉타고 하였는고
 반포보은(反哺報恩)이 귀아니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고구려 고분에는 세 발 달린 까마귀가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태양 속에 들어 있어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고, 신성한 신조(神鳥)였다. 후삼국시대, 궁예가 왕이 될 것을 미리 알려준 새도 까마귀였다. 당시 까마귀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길조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검은색은 악이고, 흰 것이 선이라는 관념에 의하여 까마귀는 악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까마귀는, 이른바 '흑백논리'의 희생자인 셈이다.

곱창에서 갈비까지

“홍성 가서는 말 잘하는 체 말고, 예산 가서는 옷 잘입은 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예산 사람이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한때 예산은 내포지방 경제의 중심이었다.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인 ‘호서은행’이 바로 예산에 설립되었을 정도로 예산의 경제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일제 때의 호서은행의 건물은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다른 이름의 은행으로 사용되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 발행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도청 소재지인 공주에서 1년 동안 거래된 돈이 26만 6백원이었는데, 예산에서 거래된 금액이 44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1926년에는 명주실을 생산하는 제사공장이 읍내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충남방적의 전신에 해당한다.

경제 혹은 지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예산은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고, 그래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그중 하나가 갈비이다. 갈비는 예산읍내와 덕산 쪽의 고덕이 유명한데, 예산읍-덕산과는 서로 삼각지점에 해당하는 광시(면)은 질 좋은 한우 육고기의 집산지로 유명하여, 정육상점이 거리에 즐비하게 타운을 이루고 있다. 갈비와는 부위가 다르지만, 삼교의 곱창도 빼놓을 수 없는 예산의 음식이다. 삼교는 곱창과 ‘삼다리 총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와” 살았던 가수 조영남씨의 연구지, ‘내고향 충청도’이기도 하다. 그는 이곳에서 중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그의 노래비가 읍내의 길가에 서있다. 이 삼교에서 고개를 하나 넘으면 예당저수지가 펼쳐진다. 경향각지에서 태공들이 모여들고, 붕어찜과 매운탕을 맛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1천 4백년 전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기도 하다. 일제 때까지는 삼교천(무한천) 물길을 통해서 서해바다의 고깃배들이 직접 예산에 와 닿았다.

육고기와는 종류가 다르지만, 사과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예산의 농업특산품이다. 예산 일대는 넓은 평야와 함께 낮은 구릉상의 지형이 매우 발달해 있다. 산이나 들이나 바다보다도, 사람에게 가장 평화로운 안정감을 주는 것은 넓게 펼쳐진 구릉인 것 같다. 여기에 일제 이후 사과 작목이 집중 육성되었다. 예산의 사과는 선물로는 매우 좋은 품목이다. 특히 무언가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만회하기에는 사과만한 것이 없다. ‘사과로 사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전에는 담배도 많이 하고 뽕밭도 넓었다고 한다. 예산의 농업 발전은 이곳에 예산농업학교를 설치시켰고, 이 ‘예농’은 몇 차

레 변신을 통하여 지금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산업과학대학)가 되어 있다.

흑치상지의 애환서린 임존성

공주·부여가 백제의 왕도였다면, 예산은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었다. 예산의 대흥은 백제시대의 임존성으로서 백제 멸망 직후, 백제 부흥운동의 2대 거점, 그리고 부흥운동 최초로부터 최후까지의 거점으로서 알려져 있다.

부여 도성은 660년 7월 13일 나당군에 의하여 함락되고 공주로 피란하였던 의자왕은 7월 19일 항복하였다.

8월 2일에는 부여에서 나당군의 전승 축하연이 거행되었다. 그날 신라 무열왕 김춘추는 당장 소정방과 함께 당상에서 올라앉아, 패망한 나라의 의자왕과 왕자 부여 룡으로 하여금 당하에서 술을 따라 올리게 하였다. 이 참담한 광경에 백제 신하들의 소리죽인 울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고 한다. 9월 3일 소정방은 의자왕과 백제왕족 신하 93인, 백제민 1만 2천을 포로로하여 당으로 돌아갔다. 백제부흥의 기세를 꺾기 위한 것이었다. 의자왕은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생전 부여 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한 채, '낙양성 십리허'의 북망산에 묻혔다.

예산 임존성은 백제 부흥운동의 시발지였다. 흑치상지 장군이 부흥군을 봉기하자 불과 10일만에 무려 3만이 이에 호응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여에서 전승 축하연을 벌인 소정방은 곧 나당군을 끌고 예산 임존성을 공격하였는데, 그것이 8월 26일의 일이었다. 임존성 공격이 실패하자 소정방은 부여로 돌아가 의자왕을 포로로 귀국하였던 것이다. 그후 임존성에 있던 복신 등이 주류성으로 거점을 옮겨 왕자 부여풍을 부흥백제국의 왕으로 옹립하였는데, 임존성은 주류성이 함락 당한 이후까지 부흥군의 거점을 유지하였다. 663년 9월 주류성을 함락한 나당군은 10월 22일부터 최후거점 임존성으로 공격을 집중, 11월에 드디어 임존성을 공략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도학 교수는 임존성의 의미에 대하여 “임존성 봉기는 우리나라 의병운동의 뿌리가 되었다”고 규정하고, 바로 그 의로운 정신이 계승되어 내포지역에서 많은 순교자와 의사, 지사들이 배출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임존성에 대한 최후 공격에서 김유신군은 한 달동안의 공격에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아이로 니칼하게도 임존성을 함락시킨 것은 임존성 부흥운동의 영웅 흑치상지였다. 흑치상지 장군은 중도에 나당군에 항복하였으며, 임존성 함락으로 부흥군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당의 장군으로 승승장구하여 토번, 돌궐 등 지금의 티벳, 내몽고 등지에서 싸움에서 크게 무락을 떨쳤다. 끝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였으며, 1929년에 북망산에서 도굴꾼에 의하여 묘는 파헤쳐졌다. 묘에서는 2개체의 유체(뼈)가 나왔다고 하는데, 흑치상지와 흑치준 부자의 묘지석이 나오므로써, 도굴된 묘가 흑치상지 부자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유원재 교수는 덕산의 향토사학자 박성흥 선생의 의견을 받아들여, 흑치상지 장군이 아마도 예산, 더 구체적으로는 덕산 출신일 것으로 단정하였다. 흑치(黑齒)가 고대 덕산의 옛이름 ‘금물(今勿)’ ‘금무(今武)’ 등과 같은 뜻이라는 점, 흑치상지가 백제 서부(西部) 지역 출신이라는 점, 예산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봉기한 점에서 예산 지역 출신이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유교수는 믿고 있다. 경청할만한 의견이다.

이도학 교수는 그의 책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에 ‘한 무장의 비장한 생애에 대한 변명’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교수는 흑치상지의 생애를 ‘가슴저린 생애’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이처럼 부침(浮沈)과 곡절(曲折)이 심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었다. 비장한 순간 순간과 그러한 면면을 접할라치면 가슴이 찡하게 울릴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또 태산같은 장군의 성품에 매료되기도 하였다.

흑치상지가 몸을 던지고, 3년 여의 부흥전쟁이 전개되었던 임존성 봉수산 아래에서는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태공들이 한가롭게 낚시를 물에 던지고 있다. 예당저수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가는 조객(釣客)들로 하여금 흑치상지와 임존성의 역사를 알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가 될 것만 같다. 그래서 나는 이 흑치장군의 사적을 예당 저수지의 부근 임존성 가까운 곳에, 언젠가는 새겨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백제3불’과 예산 4면석불

흑치상지가 예산에서 백제 부흥의 기치를 올렸을 때, 이에 호응하여 순식간에 3만의 사람들이 집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갖은 공격을 이기며 3년 세월을 버텨 나간다. 예산지역이 부흥운동 최초의 시발지이며 최후의 거점일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예산의 봉산면 화전리에 남겨진 백제불상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한다.

백제시대의 예산은 도성지역 밖의 외곽, 혹은 주변지역에 해당한다. 백제문화 발전의 그릇이 되었던 불교는 왕실과 귀족의 종교였기 때문에 당시의 불교사찰은 공주, 부여의 도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산지역 일대는 지방으로서는 드물게 절이 들어섰고 상당한 수준의 불교문화 발전의 거점이 되었다. 보물 794호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 봉산면 화전리의 백제 사면석불은 당시 불교문화 거점으로서의 예산지역의 비중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인근 서산 운산면 용현리 마애불, 태안읍 백화산 마애불은 예산의 사면석불과 함께 가야산 주변 일대가 백제시대 중요한 지방의 불교 거점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봉산면의 백제 사면석불은 높이 약 3미터, 사방으로 불상을 조각하였는데, 그 솜씨는 유명한 서산의 마애불에 별로 뒤지지 않는다.

예산의 사면석불은 서기 6세기의 것으로, 내포지역의 ‘백제3불’ 중 아마 가장 일찍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산과 태안 등 3불의 다른 부처가 평면에 삼존불을 조각한 것과는 달리, 바위 덩어리 사방에 각양의 불상 도합 4개를 조각하였다. 그중에는 앉아 있는 좌불, 서있는 입불도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4면불의 얼굴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나는 종종 이 불상을 소개할 때 ‘면목(面目) 없는 부처님’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요즘 이 불상을 생각하면 정말 면목이 없다. 내포지역의 ‘백제삼불’ 가운데 유일하게 보물지정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최근 태안 마애불이 보물에서 국보로 다시 지정을 받았다), 주차시설이 없어 단체로 갈 경우 차도를 송두리째 막고 버스를 주차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원시적’ 여건 때문에도 그렇다. 그러나 비록 ‘면목은 없지만’, 갈 때마다 불상의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광배의 조각, 두광의 연꽃무늬를 보노라면 1천 4백년 전 백제 예인(藝人)의 힘과 정신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는다.

“무너진 섬돌엔 이끼가 끼어 있네”

예산의 사면불을 비롯한 ‘백제3불’은 백제시대 내포지방이 불교문화의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예산의 수덕사가 지방에서는, 드물게 백제시대 창건의 절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

다. 흔히 충남지역에서 오랜 역사의 절에 가면 으레 ‘백제 창건의 절’이라는 안내문을 접한다. 그러나 실제 백제 창건의 남은 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수덕사가 백제 창건의 절임은 문헌기록과 함께 절에서 나온 아름다운 백제 와당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백제시대의 불교는 후대와는 달리 철저히 왕족 내지 귀족들만의 종교였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왕족과 귀족들이 거주하는 왕도(도성)의 종교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도성 부여에서 멀리 떨어진 예산 일대에 어떻게 불교의 거점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 중요한 문제 제기가 아닐 수 없다. 백제시대에 있어서 예산 일대는 불교문화의 거점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문화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나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제 당시 이 지역이 갖는 존재위치나 비중과 관계되는 일이다. 백제 도성이 함락된 이후, 어떻게 예산의 임존성이 곧바로 부흥운동의 거점으로 부상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순식간에 ‘3만’의 부흥군이 몰려들 수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이 수덕사와 사면불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백제 창건의 수덕사는 오늘날 경내의 대웅전(국보 49호) 건물로 유명하다. 이 건물은 고려 충렬왕 34년(1308)의 건축으로서, 창건연대가 확실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꼽히고 있다. 맛배지붕 주심포 건물 양식으로 단순성과 간결미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간결한 것의 힘과 멋”을 보여주는 이 대웅전에 대하여 유희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수덕사 대웅전 건축은 그 구조와 외형이 아주 단순하다. 화려하고 장식이 많아야 눈이 휘둥그레지는 현대인에게 이 단순성이 보여주는 간결한 것의 아름다움,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수식이 가해지지 않은 필요미(必要美)는 얼른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안정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덕사 대웅전의 저 간결미와 필요미가 연출한 정숙한 아름다움에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도 가벼운 밀화장만 한 중년의 미인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것이다.

수덕사에는 대웅전 이외에 보물급의 불교 문화재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문화재 지정조사 관계로 전문가와 동행하여 이들 유물들을 한꺼번에 직접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불교문화재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

백제 이후 예산의 사찰중 가장 번창하였던 것은 가야사였다. 가야사는 특히 고려시대 내포지역의 최대 사찰이었지만, 조선시대 절의 세력이 기울고, 대원군에 의하여 폐사되는 운명이 되었으나 그 넓은 절터만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유적은 아직 제대로 조사되거나 정비되어 있지 않다. 가야사터를 내려다보는 언덕, 원래 가야사의 금탑이 있었다는 자리에는 대원군이 만든 그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가 있다. 이 산소의 음덕(?)으로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수 년 전 풍수지리에 의한 음택잡기로 유명한 육관도사라는 분이 있었다. 자신의 묘를 어디로 잡는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큰 관심이었는데, 그 분의 유택(幽宅)은 이 남연군 묘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예산 읍내의 고찰로는 향천사가 유명하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분위기 있는 절이며, 13세기 고려시대 문장가로 유명한 이규보의 향천사 시가 전하기도 한다.

옛 우물에는 오동잎이 가득하고
무너진 섬돌엔 이끼가 끼어 있네

‘향천(香泉)’이라는 이름 그대로, 향천사는 당시에도 좋은 물의 샘이 유명했던 모양이다. 일제 때는 이 계곡의 물을 받아 식수를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절의 입구밖에 ‘옷샘약수’라는 물길은 터가 있다. 절 뒤 부도밭에서는 의각국사의 얼굴로 생각되는 친근감 주는 작은 인면상(人面像)이 부도의 지붕 용마루쪽에 새겨져 있다. 이 ‘예산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도, 절을 찾는 작은 즐거움이 된다. 도회에 가깝게 있으면서도, 이처럼 산속 깊은 곳의 고찰 같은 느낌을 주는 절도 드물 것이다.

봄에는 매헌(梅軒), 가을에는 추사(秋史)

만일 예산의 인물과 관련하여 ‘예산 3걸’의 사적을 선정한다면, 어떤 곳을 들 수 있을까? 3인중 적어도 2인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을 줄 안다. 첫째는 조선시대 후기의 금석학자이며 한국최고의 서예가라 할 추사 김정희(1786-1856)이고, 둘째는 1932년 중국 상해의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장성들을 폭사시키고 처형당하였던 윤봉길 의사(1908-1932)이다. 근년 추사선생에 대한 평전이 유홍준 교수에 의하여 출간되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는 추사 선생의 고택 등의 유물 유적(보물 547호, 천연기념물 106호, 충남도 유형문화재 43-45호, 기념물 24호, 188-189호)이 자리하고 있고 인근 화암사라는 절에는 그의 필적이 남아 있거니와(도기념물 151호), 유홍준 교수는 추사선생을 “정녕 나로서는 넘어가기 힘든 강파르고 아득히 높기만한 거봉”이라고 표현하였다.

온천으로 유명한 덕산 온천의 시랑리에는 윤봉길 의사의 생가와 ‘충의사’로 불리는 사당, 그리고 기념관 등이 있다(사적 229호, 보물 568호). 덕산온천은 교통 때문에 근년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붐비지 않았던 곳이지만, 온천의 수질로 말하면 옛 백제의 영역에서는 가장 좋은 온천의 하나로 손꼽힐만한 곳이다. 윤봉길 의사는 상해의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투척하여 소화(昭和) 천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수라장으로 만듦으로써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세계에 고발하였다. 이 의거에 대하여 당시 중국 총통 장개석이 “중국군 백만대군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격찬하였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날이 4월 29일이었고, 이 때문에 매년 4월 말에는 매헌문화제가 덕산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4월 29일은 윤의사의 의거일이지만, 이날은 일본에서는 지금도 공휴일이다. 천왕의 생일이기 때문인데, 소화천왕의 사망 이후로는 자연과 친화하는 ‘녹색의 날’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계속 축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종종 들르는 예산읍내 개장국집의 방 벽에는, 윤봉길 의사가 1930년 고향에서 만주 땅으로 망명할 때 남겼다는 한 줄 시문의 복사본이 걸려 있다. “丈夫出家 生不還”, “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의 기개가 얼마나 치열하였나 짐작할 수 있다. 거사 이후 의사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일본으로 호송되어, 12월 19일 총살형에 처해졌다. 윤의사의 의거일을 앞둔 어느 해 4월 11일 여러 신문에는 윤의사의 총살형 장면의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기사의 제목은 “일제는 무릎꿇린 채 총살했지만, 윤의사는 끝내 굽히지 않았다”고 하고, 처형 직전과 직후의 두 장 사진에 대한 설명에서 “처형 직후 일본 헌병이 쓴 총탄이 윤의사의 이마 한가운데를 관통한 처참한 모습”이라 하였다. 조국을 위해 순국할 때, 윤의사의 나이는 약관 25세였다!

예산의 역사 속에서 예산의 인물 세 분을 선정한다면, 추사와 매헌 다음으로는 누구를 넣을 수 있을까. ‘예산 3걸’에 넣자고는 하지 않지만, 어떤 이는 신앙 출신의 박헌영이라는 인물을 주목하는데, 나는

수덕사 앞 수덕여관의 바위그림의 화가 고암 이응로(1905-1992)를 추천하고 싶다. 원래 홍성 출생의 한국화가였던 고암은 프랑스에서 문자추상이라는 동양과 서양, 추상과 구상,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독특한 화법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정작 그가 한국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알려진 것은, 그림 때문이 아니라 1968년의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때문이었다. 무기 징역에서 2년 옥고를 치르고,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그가 남긴 문자추상의 암각화는 수덕사 입구의 명물이 되었으며, 선생의 사후인 1996년 ‘이응로 선생 사적지’라는 이름으로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내포시대’는 오는가

2006년 2월 12일, 오랫동안 끌어오던 충청도청 이전 예정지가 예산, 홍성지역으로 확정되었다. 홍성군의 흥북면과 예산 삼교읍 일부, 용봉산 일대 300만 평 부지가 새 충청도청 예정지로 확정된 것이다. 다음은 평가 결과이다.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앞으로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 (2006~2009년)〉 준비·계획단계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제정이나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특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 등 건설에 따르는 기초준비를 마무리 함.

〈2단계 (2010~2012년)〉 건설단계

도청건물의 건축을 마치고, 행정도시에 중앙부처가 들어오는 2012년까지 도청이전 작업 완료 계획

〈3단계 (2013년-)〉 후속 발전단계

행정도시 건설 로드맵과 맞추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대전, 청주, 오송, 천안, 아산 그리고 신도청소재지가 함께 연계되어,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의 연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함.

한편 충청남도는 2천년대 도정의 주요 지표로서, ‘내포문화권의 개발’을 내걸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이어 예산을 경유하는 대전-당진 간의 고속도로 공사도 진행중이고, 인근 천안-아산이 수도권 개념에 포함되어 개발붐을 일으키고 있는 단계이다.

충남유학의 학맥과 학풍

황 의 동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1, 13세기 한국 성리학의 전래와 개척

1) 송나라 유학자 鄭臣保의 간월도 망명

충남유학은 중국 송대의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전래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고, 또 고려 말 13세기 성리학이 처음 들어올 때 이를 소개하는데도 앞장 서 왔다.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온 것은 1289년(충렬왕 15) 안향(安瑒: 1243~1306)이 충선왕을 따라 원나라에 가서 약 4개월을 머물다 그 이듬해인 1290년에 돌아왔는데, 이 때 『주자전서』를 가져온 것이 그 시초다. 그는 귀국 후 박사 김문정(金文鼎)을 중원에 보내 공자를 비롯한 72현인의 초상과 제기(祭器), 악기(樂器), 유교 경전들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1237년(고종 24년) 몽고의 침입으로 남송이 망할 무렵 중국 송나라 절강성의 유학자인 정신보(鄭臣保: ?~1271)가 고려국 간월도에 망명하여 아들인 정인경(鄭仁卿: 1241~1305)에게 성리학을 가르쳤음이 밝혀져 주목된다. 정신보는 상서형부원외랑(尙書刑部員外郎)의 벼슬에 있었는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의리로 충남 서산의 간월도에 망명하여 서산 정씨의 원조가 되었다. 그는 남송의 저명한 유학자 조복(趙復), 요추(姚樞), 양유중(楊惟中) 등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이에 관한 기록이 서산 지리지인 『호산록(湖山錄)』과 서산 정씨의 가승(家乘)에 전해질 뿐,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18세기 순조 때의 문신인 목만중(睦萬中: 1727~?)은 정신보와 정인경의 전기에서 채모(蔡謨)의 비명(碑銘)을 인용해 정신보가 한 조각 배로 바다를 건너 성리학을 전해왔고, 송나라의 성리학을 만든 주렴계(周濂溪),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을 사숙(私淑)한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또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서는 정신보를 충신으로 배열하고 그 절의를 칭송하였다.

정신보의 아들인 정인경은 아버지로부터 성리학을 배우고 또 중국어를 익혀 신동으로 불리었는데, 9살 때 도비산 정원사에 올라 부친이 늘 그리워하던 고국을 바라보며 시를 써 바위에 새겼다는 望鄉詩가 있다.

시름 속에 높은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구름이 북쪽으로 날더라.
 문득 조상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봄비 따라 흐른다.
 오랑캐 風塵이 우주에 뽀혔으니,
 만 리 밖에 떨어진 외로운 신하로다.
 어느 날 하늘과 땅이 평온하게 되어,
 옛 나라를 다시 찾으리.

정인경은 그의 연보에 의하면, 당시 고려가 불교국가임을 개탄해 불교를 배척하고 항상 성리학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의 책상에는 정이천, 정명도의 책만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정신보가 고려에 망명해 아들 정인경에게 성리학을 가르친 것은 안향의 성리학 전래보다 적어도 50여년 이상 앞선 것이다. 물론 이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정신보의 성리학 전래는 분명하다. 이는 안향의 성리학 전래에 버금가는 것으로 충남유학의 위상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2) 고려 말 성리학의 개척자들

충남유학은 고려 말 성리학이 들어와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안향이나 정신보에 의해 성리학이 전래되었지만, 한국의 학계는 아직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안향만 하더라도 원나라에 가서 4개월 정도 머물렀으니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였는가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충남 보령 출신의 백이정(白頤正: 1260~1340)은 충선왕을 따라 원경에서 10년을 머물며 성리학을 배우고 성리학에 관한 책과 주자의 『가례(家禮)』를 구해가지고 돌아왔다. 백이정이 10년 동안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배웠다는 것은 그가 실질적으로 성리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와 많은 제자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고 전파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는 귀국 후 이제현, 박충좌, 이곡, 백문보 등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다. 이렇게 볼 때, 초기 성리학 도입기의 실질적인 개척자는 바로 백이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천 한산 출신의 李穀(1298~1351), 李穡(1328~1396) 부자도 초창기 성리학 전파에 많은 공을 세웠다. 이곡은 이제현의 문인으로 문장에 탁월했고 원나라 정동성 향시에 수석으로 급제하였다. 이곡의 아들인 이색은 이제현의 문인이며 우왕의 사부로서 정몽주, 길재와 더불어 '고려 삼은(高麗三隱)'으로 불린다. 그는 원나라 국자감의 생원이 되어 중국에서 성리학을 수업하였다. 그도 이제현, 이곡과 같이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널리 철학, 문학, 역사 등 다방면에 능통한 유학자였다. 이색은 성균관 대사성으로 성균관의 규모를 확장하고 학생 정원을 늘리고, 김구용, 정몽주, 박상충, 박익중, 이송인 등 유능한 선비들을 뽑아 교수로 초빙하였다.

또한 이존오(李存吾: 1341~1371)는 고려 공민왕 때의 유학자로 신돈의 횡포를 탄핵하다 공민왕의 노여움을 샀으나 이색 등의 변호로 극형을 면하고 좌천되었다. 후에 공주 석탄에 은거하다 울분으

로 병이나 죽었다. 율곡은 「현의사기(顯義祠記)」에서 “고려 말에는 정주(程朱)의 말이 배포되지 못하고 성리학이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선생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정주의 학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13세기 고려 말 성리학의 수입기에 충남 출신의 유학자들은 성리학을 소개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송의 유학자로 서산 간월도에 망명한 정신보는 안향 이전에 이미 성리학을 소개한 유학자임이 분명하고, 백이정은 원나라에 가서 성리학을 충실히 배워 소개한 대표적인 유학자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이곡, 이색, 이준오는 성균관의 발전과 성리학의 계발 및 전파에 크게 기여하였다.

2, 기호유학의 본산 ‘충남유학’

1) 율곡학파의 흐름과 특성

한국유학은 크게 보면 기호유학과 영남유학으로 나뉘어 전개되었고, 기호유학은 다시 율곡학파와 우계학파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그런데 율곡학파와 우계학파의 중심무대가 공통적으로 충남지역임은 우연이 아니다.

율곡학파는 율곡의 학맥에 직접 닿아 있거나 또 율곡의 철학정신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학맥이다. 퇴계의 성리학을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이 비판하였고, 우계 성혼(牛溪 成渾)이 퇴계의 학설에 동조하자, 율곡이 이를 비판함으로써 영남, 기호의 학술적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율곡의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과 중봉 조헌(重峰 趙憲)이 있다. 김장생은 연산출신으로 아들인 김집과 더불어 ‘동국 18현’으로 추앙되었으며 조선 예학을 대표한다. 율곡학파 내지 충남유학이 융성하게 자리하게 된 데는 김장생의 기여가 크다. 김장생, 김집 부자의 문하에서 훌륭한 유학자들이 배출되었으니,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윤선거, 윤순거, 유계, 김경여, 조익 등이다.

또한 율곡학파가 크게 융성한 것은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에 의해서라 할 수 있다. 그는 회덕출신으로 송준길과 함께 문묘에 종사되었는데, 17세기 조선 유학계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병자호란 후 북벌의리의 실현에 앞장섰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곡의 학문을 계승하고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의 문하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권상하, 윤증, 김만중, 김창협, 정호, 임영, 이희조, 이단하, 박광일 등이 있다.

송시열의 학통은 권상하에게로 전해져 충북 청풍을 중심으로 강학을 하였는데, 이간, 한원진, 이이근, 성만징, 최징후, 현상벽, 채지홍, 윤봉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같으나 다르냐 하는 주제로 논쟁을 벌려 조선 성리학을 새롭게 발전시켰다.

송시열의 학통은 정호를 거쳐 김위재, 김정묵, 송치규, 송달수, 송병선으로 계승되었다. 또 한원진의 문하에는 송능상이 있어 송환기로 이어졌다.

율곡학파는 이 밖에도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율곡의 학설을 지지하고 존경해 온 학맥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이단상(李端相) 계열로 그의 문하에서 임영, 김창협, 김창흡이 배출되었고, 김창협의 문하에는 박필주, 김신겸, 어유봉이 있었다.

또 하나의 율곡계열로 이재(李穡) 계열이 있으니, 그의 문하에서 김원행, 임성주, 임정주 등이 배출되었다. 김원행은 김창협의 손자로 그의 문하에는 황윤석, 홍대용, 박윤원, 오윤상 등이 있었다. 박윤원

의 문하에는 홍직필이 있어 이후 임헌회, 전우로 이어졌다. 오윤상의 문하에는 그의 아우 오희상이 있었는데, 그의 학맥은 유신환, 서응순으로 이어져 갔다.

또 하나 율곡계열로 이항로(李恒老) 계열이 있다. 이들은 한말 위정척사에 앞장섰는데, 김평묵, 최익현, 유인석, 유중교 등이 그의 문인이다.

그런데 기호유학의 중심축인 율곡학파의 중심인물인 김장생, 송시열, 송준길, 이간, 한원진, 임성주, 임헌회, 최익현이 충남에서 활동한 것은 충남유학의 비중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율곡학파의 학문적 특성은 무엇인가? 첫째 율곡의 성리학을 계발하고 옹호하는데 주력하였다. 율곡학파는 퇴계학파가 율곡의 성리설을 비판해 오자 이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였다. 퇴계와 율곡의 학술적 쟁점이었던 리(理)의 발용문제, 사단칠정의 성리학적 해석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므로 율곡학파는 율곡철학의 근간이었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의 논리 개발과 함께 퇴계의 리발(理發)을 비판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인간의 심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퇴계의 도덕적 인간관에 대해 율곡의 전인적 인간관을 적극 옹호하였다.

둘째 우계학파에 비해 경직된 학문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우계학파는 이기심성의 성리학적 논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율곡학파는 퇴계학파와의 논변과정에서 율곡의 설을 옹호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율곡의 설을 교조적으로 지키게 되어 보수적 색채가 짙었다. 그러나 율곡학파 가운데에서도 율곡을 사숙했던 이단상 계열이나 이재 계열은 율곡 직계 계열에 비해 자유로웠다. 이들은 성리학만 하더라도 율곡의 학설에 매이지 않고 퇴계의 학설도 수용하면서 절충적 성격을 지녔다.

셋째 현실참여에 적극적이었다. 우계학파가 소극적 대응을 한데 대해 율곡학파는 현실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였다. 유학 자체가 개인적 수기로부터 사회적, 정치적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때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현실참여는 일면 정치 일선에 참여하여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바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세에 맞서 싸우고 대내적 모순에 맞서 싸우는 의리의 실천이었다.

2) 우계학파의 흐름과 특성

우계학파(牛溪學派)는 우계 성훈(牛溪 成渾: 1535~1598)을 중심으로 한 기호유학의 한 갈래다. 성훈은 율곡의 학문적 동지로서, 학문과 실천이 훌륭해 많은 존경을 받았고 율곡과 함께 문묘에 종사된 '동국 18현'의 하나이다. 그는 우리나라 사림파 유학의 정통 계열을 잇고 있다. 그의 부친 성수침은 조광조의 문인으로 고려 말 정몽주, 길재의 학통을 잇고 있다.

성훈의 문하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윤희, 조현, 안방준, 이시백, 황신, 정엽, 강항, 김상용, 신희, 최기남, 권극중, 김덕령, 오윤겸, 성문준, 신응구 등이 있었다. 성훈의 학문은 사위인 윤희에게 이어져 그 아들인 윤선거로, 또 손자인 윤증으로 이어졌다. 창령 성씨의 '은거해 살며 자신을 지키고, 성현을 기약한다'는 가문의 학풍은 파평 윤씨의 가학으로 전승되었다. 우계학파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학맥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윤증과 송시열간의 대립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윤증은 송시열의 촉망받는 제자였지만, 이념적 차이와 정치적 견해의 차이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사제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는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고, 학파로는 율곡학파와 우계학파로 갈라지게 되었다. 17세기 정치적 격랑기에서 소론에 몸담고 있던 박태보, 박

태유, 박세채, 박세당, 남구만, 조지겸, 권시, 윤희, 오윤겸, 최석정 등이 모두 범 우계학파에 속한다.

명재 윤증(明齋 尹拯: 1629~1714)은 논산군 노성출신으로 윤선거의 아들이며 우계학파의 중심적 인물이다. 그는 당시 송시열, 박세채와 더불어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유림의 지도자였으나, 숙종의 지극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얼굴 없는 재상’, ‘백의정승’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 그의 문하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박태보, 민이승, 정제두, 한영기, 윤동원, 양득중, 권이진, 임상덕, 성지선 등이 있다.

또한 대전 탄방 출신의 탄옹 권시(炭翁 權諤: 1604~1672)는 영남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부친 권득기가 숙부인 권극중에게 배우고 권극중은 성혼의 문인이므로 우계학파에 속한다. 권시는 윤선거, 윤희와 친밀했고 이념적으로도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기의 양명학자들이 대체로 우계학파에서 나왔는데, 특히 정제두는 한국양명학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그는 강화에서 강학을 열어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는데, 이광사, 이광신, 이광려, 김택수, 심육 등이 있다. 이들의 학맥은 한말까지 이어져 갔다.

이러한 우계학파의 중심인물이었던 윤희, 윤선거, 윤증의 활동 무대가 충남이었다는 점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계학파의 학문적 특성은 무엇인가? 첫째는 개방적인 학풍이다. 영남유학에 비해 기호유학이 개방적이라면, 기호유학내에서 울곡학파에 비해 우계학파가 더 개방적인 학풍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성리학에 있어서도 울곡의 학설에 구애되지 않고 퇴계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절충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특히 퇴계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양명학을 주도적으로 받아들였고, 박세당이나 윤희는 주자의 권위에 구애되지 않고 경전 해석을 하였으며, 도가철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둘째는 가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내면적인 자기 수양을 추구하였다. 이는 창령 성씨의 가학풍을 계승한 것으로, 윤선거의 강화도 사건으로 인해 파평 윤씨도 이러한 학풍을 이어갔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벼슬에 나아가 현실을 바로잡거나 정책을 펼치지 않고, 물러나 재야에서 학문과 인격을 닦아 유교적 모범이 되고자 하였다.

셋째는 무실(務實)학풍을 추구하였다. 무실학풍은 울곡과 성혼에 의해 강조된 것인데, 윤선거, 윤증을 통해 이러한 학풍이 강조되고 계승되었다. 무실학풍은 병자호란 후 대의명분론이나 북벌 의리론이 대세를 이루었던 상황에서 내실과 실천 그리고 실용을 추구했던 학풍이다. 이러한 무실학풍은 양득중, 임상덕, 정제두로 이어져 후일 양명학이나 개화사상의 철학정신으로 계승되었다.

3, 총절의리의 실천

1) 외세에 항쟁한 충남유학

충남은 역사적으로 총절과 의리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또 예학의 본 고장으로 양반문화가 자리 잡기도 했다. 수많은 충신, 열사, 의사, 의병장이 배출되어 충남은 명실상부한 총절의 고장으로 인식되어 왔다. 총절과 의리는 유학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가치다. 인간이 인간답고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바가 바로 의리에 있다. 의리는 인간의 바른 도리다. 그런데 의리는 대외적으로는 외세에 맞서 싸우는 자주적 의리로 나타나고, 대내적으로는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의리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위협속에서 살아왔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은 민족적 위기였다. 7년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민족의 자주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섰다. 울곡의 문인이었던 중봉 조헌(重峰 趙憲)은 왜적을 맞아 영규대사와 함께 금산전투에서 싸우다 장렬히 최후를 마쳤다. 그는 옥천출신인데 울곡과 우계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이미 전쟁을 예언하고 도끼를 차고 그에 대한 대비를 임금에게 간절히 진언했지만 소용없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청주, 보은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충청도 일대를 중심으로 싸우다 금산전투에서 7백 의사와 함께 최후를 마쳤다.

충남유학의 총절의리는 17세기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당해 또다시 발휘되었다. 팔송 윤황(八松 尹煌)은 성훈의 사위요 윤선거의 부친인데, 병자호란을 당하여 척화의리에 앞장섰다. 김상헌, 정온 등이 척화신(斥和臣)으로 청나라에 잡혀가자, 병든 몸으로 상소를 올렸다가 그 내용이 문제되어 영동으로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다.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은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회덕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효종의 사부로 병자호란 후 북벌의리에 앞장섰다. 효종은 특별히 그에게 북벌의 책무를 당부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힘썼으나 효종의 죽음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기축봉사(己丑封事)」를 올려 북벌의 의리를 강조하였고, 직(直)사상을 의리의 기초로 삼았다. 또한 그는 평생 총절의리의 선양에 앞장서기도 했다. 정몽주의 신도비문을 짓고, 사육신의 유허비를 세워주고, 조헌의 문집을 간행하고 비를 세워주었고, 이순신 장군의 전승비문을 쓰고, 삼학사와 임경업 장군의 전기를 쓰는 등 역사상 총절의리에 모범이 되는 인물들을 기리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또 충남유학의 총절의리는 한말 일제의 침략을 맞아 발휘되었다. 면암 최익현(勉庵 崔益鉉)은 이항로의 문인으로 서학에 맞서 위정척사를 실천하고 일제에 맞서 항일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그는 1906년 호남 태인에서 임병찬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나라가 망하는데 백성이 홀로 보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리에 따라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신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구금 중 혹독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이 총절을 지켰으며, 마침내 대마도에 유배되어서는 일본의 쌀 한 톨, 물 한 모금 먹지 않겠다고 단식하여 순절하였다.

지산 김복한(志山 金福漢)은 단발령이 내리자 이설, 임병찬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싸웠고, 1906년에는 민중식과 함께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제와 싸웠다. 1919년 3월 유림대표로 김창숙, 곽종석, 김황 등과 함께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다 투옥되어 옥사하였다. 그 밖에 송병선, 송병순, 김노동, 김은동, 이철영, 이남규, 성구용, 민중식, 성기운 등 많은 유림이 일제에 항거하는 의리를 보여주었다.

반면 이와는 달리 전재 임헌회(全齋 任憲晦), 간재 전우(良齋 田愚)는 자정(自靖)의 의리로서 소극적인 저항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도가 망하면 나라도 없다’는 입장에서 시세에 관계없이 유학의 강학과 후진양성에 매진하여 유학의 씨를 심고 가꾸는 일에 전념하였다. 전우는 당대 가장 많은 문도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충청, 호남 일대를 무대로 제자의 양성과 일제에 대한 항쟁의 길을 걸었다.

2) 부정과 불의에 저항한 충남유학

충남유학은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섰지만 또한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조선 초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충남 출신 유학자 매죽헌 성삼문(梅竹軒 成三問), 취금헌 박팽년(醉琴軒 朴彭年)을 비롯한 사육신은 이를 불의로 규정하고 목숨을 던져 싸웠다. 그들의 충절의리는 정몽주의 충절을 계승한 것으로 만세의 귀감이 되었다. 생육신으로 불리는 성담수(成聃壽)는 성삼문의 재종으로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김해로 유배되었고, 성희(成熹)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또한 성삼문의 외손인 암천 박증(巖川 朴增)도 사육신의 참화 이후 논산에 은둔하여 평생 처사로서 절의를 지켰다.

사화기에 도학을 진작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유학자로 충암 김정(冲庵 金淨: 1486~1512), 동주 성제원(東洲 成悌元: 1506~1559), 규암 송인수(圭庵 宋麟壽: 1487~1547)를 들 수 있다. 김정은 보은 출신으로 회덕에서 살았다. 29살 때 순창군수로 박상과 함께 폐비 신씨의 복위를 상소하였는데, 이는 박원종 등 반정세력의 불의를 규탄하고 권간의 협박에 굴복한 중종의 잘못을 비판하는 극렬한 상소로서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보은 사림역에 유배되기도 했으나 조광조 등의 변호로 석방되었다. 조광조 등이 주도한 개혁이 실패하고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금산으로 유배되어 이듬 해 진도로 옮겨지고, 이어 다시 제주도로 옮겨져 그곳에서 사약을 받고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또한 성제원은 조식, 성운, 서경덕, 이항 등과 함께 사화시대에 ‘은거자수 성현자기(隱居自守 聖賢自期)’의 학풍을 견지한 대표적인 처사형 유학자이다. 성희는 그의 증조부이고 생육신 성담수는 그의 백조부이고, 부친은 성몽선이다. 그는 16살 때 김광필의 문인인 유우(柳藕)에게서 수업하였고, 19살 때 송세량(宋世良)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송세량은 송인수의 부친이다. 보은 현감이 되어 훌륭한 행정으로 존경을 받았으며, 연기 달전으로 돌아와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쳤다.

송인수는 송유(宋楡)의 5대손으로 윤탁(尹倬)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윤탁은 윤증의 7대조로 조광조의 친우로서 도학파의 일인이다. 우암에 의하면 그는 형 송귀수, 매서 성제원과 함께 삼현(三賢)으로 일컬어졌으며, 성제원, 정렴(鄭濂)과 함께 또 삼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는 도학시대를 살면서 기묘명현을 흠모하였고, 전라감사가 되어서는 『소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김안로의 재집권을 따지다가 제주목사로 좌천되었고, 윤원형, 이기 등의 모함과 시기로 전라도 관찰사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그 후 대사헌이 되었다가 1545년 을사사화로 삭탈관직되어 청주 미암에 은거하던 중, 윤원형과 이기의 사주를 받은 정언각이 자작한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마쳤다. 송인수는 사화시대의 격랑을 살면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다 애석하게 희생되었다. 이와 같이 충남의 유학자들은 외세의 침략과 도전에 맞서 충의의 의리를 발휘하였고, 부정과 불의 앞에 의연히 쫓겨가 의리를 실천하였던 것이다.

4, 조선 예학의 주도

1) 충남예학의 형성과 전개

성리학은 예학의 이론적 근거라면 예학은 성리학의 실천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리학과 예

학은 표리관계가 되고 이론과 실천의 관계가 된다. 16세기가 성리학의 전성기로서 인간의 심성문제를 철학적으로 규명하였다면, 17세기에 와서는 시대 변화와 함께 예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인간의 성리는 반드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볼 때 그것은 다른 아닌 예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리학시대에서 예학시대로의 이행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청이었다.

예학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외침과 광해의 패륜, 당쟁의 심화, 가난과 기근이라는 민족적 위기에서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인륜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인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서 예학은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예학은 그 연원이 오래지만 기호예학의 선구자는 울곡 이이(栗谷 李珣)와 구봉 송익필(龜峰 宋翼弼)이다. 이들은 경기지역에 연고를 두고 매우 친밀하게 교류하였는데, 이들 문하에서 ‘동방 예학의 종장(宗匠)’으로 추앙받는 김장생이 예학과 성리학을 배웠다. 김장생은 훗날 스승인 울곡을 평해 말하기를 “스승은 성리학의 공은 매우 높지만 실천하는 학문에는 아직 미진한 과제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울곡이 성리학에는 더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지만, 예학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김장생은 이처럼 스승이 남겨준 과제를 자신의 책무로 삼고 예학에 평생을 정진했다.

특히 송익필은 김장생에게 주자 『가례』의 연구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송익필의 가례 주석서인 『가례주설(家禮註說)』과 예문답서인 『예문답(禮問答)』 등은 후일 김장생의 『가례집람(家禮輯覽)』과 『의례문해(疑禮問解)』의 저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장생은 아들인 김집과 함께 문하에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유계, 윤선거 등에게 예 교육을 시켜 호서예학의 전성기를 열었다. 김장생은 친구 신의경의 초본을 보완하여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완성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대부 사회에서 가장 널리 애용된 생활 예서였다. 아들인 김집은 예 교육을 학문의 기초로 삼고 훈육하여 그의 문하생들은 관혼상제의 예에 능통하였다. 그리고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등은 김장생과 김집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평소 의문되는 예의 적용문제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예의 실제적 활용에 크게 기여하였고 예서의 저술에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김장생의 『의례문해』, 김집의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이 이루어졌고, 사후 제자들에게 의해 김장생의 『상례비요(喪禮備要)』, 『가례집람』, 『의례문해』 등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송시열도 1천여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예문답을 남겼고, 한원진은 송시열이 예치(禮治)의 기본서로 강조하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를 중시하여 『의례경전통해보(儀禮經傳通解補)』를 저술하였다.

또한 울곡을 존경하던 기호의 도암 이재(陶庵 李紱)는 『가례』의 실용적 예서인 『사서편람(四禮便覽)』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에 가장 대표적인 생활 예서로 널리 활용되었다. 19세기 한말에 연기의 임헌회는 호서예학파의 예문답서를 기본으로 가례적 예문답서인 『전재예설(全齋禮說)』을 저술하였다.

그밖에도 아산의 박지계, 탄방의 권득기, 권시 부자, 그리고 논산 노성의 윤선거, 윤증 부자도 호서 예학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윤선거는 가학으로 율항, 성헌에 연결되지만, 또 김집의 문하라는 점에서 울곡학파에 연결되며, 윤증도 가학으로는 윤선거, 성헌에 연결되지만, 또 송시열의 문하에서 수업하기도 하였다.

또한 금산의 유계(兪槩)는 윤선거와 함께 방대한 『가례』 연구서인 『가례원류(家禮源流)』를 저술하였

는데, 후일 저작의 문제를 둘러싸고 후손들 간에 갈등이 생겨 정치적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금의 예설을 집성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윤증의 예문답서인 『의례문답(疑禮問答)』은 김장생과 김집의 예문답서 이후 드러난 『가례』의 실천 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작업이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김장생 계열의 예문답서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으며, 후일 소론계 예학의 원형을 이룬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충남예학은 조선의 예학을 주도하였고, 또 기호예학의 중심이었다. 그것은 예학의 내용과 연구 성과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조선예학사에서 충남 예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2) 충남예학의 특성

첫째, 충남예학은 『가례』를 중시하였다. 『가례』는 주자의 예서로서 조선조 사회의 의례에 기본이 되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충남의 예학자들은 그들의 예문답서에서 주자의 예설과 함께 『가례』를 가장 존신(尊信)하였고, 그 인용 횟수에 있어서도 가장 많았다. 이들은 주자의 예설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심지어는 주자의 예설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적시(夷狄視)하기도 했다. 이런 점은 충남예학이 영남예학과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례』가 중시된 것은 『가례』가 지니는 시의성과 실용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가례』는 본래 미완성의 예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문적 고증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검증작업에 고례(古禮)인 『의례(儀禮)』와 『예기(禮記)』가 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충남예학은 『가례』를 중심으로 하였지만, 『가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문적 검증을 하는데 있어서는 고례를 적극 활용했다.

둘째, 충남예학은 시의성을 중시하고 인정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예는 본래 상황과 맞아야 하고, 또 인정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찍이 송익필은 김장생의 예정신이 인정과 예를 조화했다고 칭찬한 일이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변례(變禮)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예외적 변수가 많아 그 판단과 적용이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충남의 예학자들은 속례(俗禮)가 기본 예법에 비추어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에 후하고 실용적이면 그대로 인정하거나, 저명한 예가나 대가의 자가례(自家禮)로써 기준을 삼아 시행하였다. 또 국제(國制)와 속례나 고례가 상충하는 경우는 시의와 정례(情禮)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용하고자 했다.

셋째, 충남예학은 속례의 해석에 있어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예서에도 근거가 없고 속례로써 시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에서 충남의 예학자들은 자신의 예 인식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중국과 다른 조선 나름의 자주적 예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5,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같은가 다른가?

1) '같다'는 주장의 논리와 의의 -李柬-

16세기는 조선 성리학의 전성기로서 인간의 심성문제가 주된 논제였다. 사단칠정, 인심도심, 천리인

육 등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가 주된 관심사였다. 17세기 이후 시대변화와 함께 철학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되 실학, 양명학, 예학 등이 발흥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18세기에 와서 수암 권상하(遂庵 權尙夏)의 문하에서 인성과 물성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의 주역인 외암 이간(巍巖 李柬: 1677~1727)과 남당 한원진(南塘 韓元震: 1682~1751)이 충남 출신이었다.

이 논쟁은 사단칠정논변, 예학논변과 더불어 조선유학사에서 3대 논쟁으로 일컬어질 만큼 큰 의의를 갖는다. 이는 한국 성리학의 심화과정으로 큰 의미가 있고, 중국성리학과 차별화되는 한국 성리학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논쟁은 1709년(숙종 35년) 이간의 나이 32살, 한원진의 나이 27살 때 시작되어 7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이후 대를 이어 약 2백여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으나 다르냐 하는 이 논쟁은 이미 성리학의 이론속에 내재해 있던 과제였다. 이 논변을 호락논변(湖洛論辨) 또는 인물성동이논변(人物性同異論辯)이라고도 하는데,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하는 것이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이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이다. 이 논쟁의 중심인물인 이간과 한원진은 모두 충남출신이었지만, 이후 이 논쟁에 참여한 유학자들 가운데 동론(同論)에 찬성하는 학자들이 경기지역에 많았으므로 낙론(洛論)이라 불렀고, 이론(異論)에 찬성한 학자들은 주로 호서지역에 많아서 호론(湖論)이라 불렀다. 먼저 인성과 물성을 같다고 보는 낙론의 주장과 그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간은 『중용』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근거로 인간과 금수는 모두 건순오상(健順五常)의 덕을 선천적으로 동일하게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태극의 리(理)와 음양오행의 기(氣)가 묘합한 가운데에서 리(즉 性)의 측면, 즉 본연지성만 보아 인성과 물성의 같음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둘로 구별하고, 본연지성만을 가리켜 인성과 물성의 보편성을 말한다. 그는 태극, 천명, 건순오상의 덕을 합해 본연지성이라 하고, 이를 사람이나 사물이나 모두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사람과 사물이 다른 것은 기의 같지 않음으로 인한 것으로, 사람은 기의 바르고 통한 것을 받았으나, 사물은 그 치우치고 막힌 것을 받았을 뿐이라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인물성 동론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선 인간과 사물의 보편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치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게 본다. 동론의 논리는 인간과 사물이 같고 인간과 인간이 평등하고 사물과 사물도 같다는 논리다. 그러므로 자연 내지 사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이러한 인물성 동론 즉 낙론의 전통이 조선 후기 18세기 북학파 실학의 연원이 되고 있다. 북학파의 선구자인 홍대용은 김원행의 문인이고 김원행은 도암 이재의 문인이다. 이들은 모두 낙론을 대표하는 유학자들이다. 북학파들은 당시 중화와 오랑캐를 분별해 보던 화이론자(華夷論者)들과는 달리 중화와 오랑캐도 하나라는 논리에서 명분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아울러 오랑캐라고 하는 청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이에서 찾았다.

또한 동론의 의의는 오늘날 생태윤리나 환경윤리의 측면에서 그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인간과 사물, 인간과 자연이 같다는 것은 곧 자연이나 환경 그리고 생태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인간 중

심의 세계관에서 자연의 훼손이나 환경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간과 자연이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데서 지구촌 가족의 상생윤리가 가능한 것이다.

2) ‘다르다’는 주장의 논리와 의의 -韓元震-

한원진은 『맹자』 ‘생지위성장(生之謂性章)’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근거로 성삼층설(性三層說)을 주장하면서 인성과 물성의 차이를 증명하였다. 그의 성삼층설은 본래 스승인 권상하에게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한 근원의 성과 나누어진 성과 나누어 또 나누어진 성으로 구별해 설명하였다. 첫째는 최고 유(類)개념으로서의 리(理)로서 형기를 초월한 리를 말한다. 이 리는 태극이요 천명인데, 만물의 리가 동일하다. 둘째는 기질로 인하여 말하는 리로서 건순오상이 이에 해당한다. 현상물은 모두 리와 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이요 기질지성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태극, 천명의 리가 형기안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간이 말하는 기질지성이다. 한원진은 이 기질지성을 본연지성으로 보고,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았다. 셋째는 기질을 섞어서 말하는 리로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같지 않은 리를 말한다. 이처럼 한원진은 기질지성 하나로 보고 기질지성의 치우치고 온전함에 따라 리(性)도 치우치고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이론(異論)의 의의는 무엇일까? 인간과 사물을 구별해 보는 관점은 결국 인간의 지위를 자연가운데 특수화시켜 본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결코 자연이나 사물과 동일한 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위대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 인간본성의 우수성, 인간 능력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인간이 우주 경영의 주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인간은 현실적으로 형기를 가진 존재로서 이기묘합(理氣妙合)의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준다. 기를 떠나서는 인간을 말할 수 없다. 기속에 내재된 리, 형기속에 내재한 성을 인간 실존의 모습으로 보는 관점이다. 관념적 인간이나 이상적 인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으로 돌아가 기질의 변화를 통해 인간 본래성을 회복하는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간과 한원진의 인물성 동이논쟁의 초점은 본연지성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있다. 인간은 이 본연지성을 본연의 리로 보아 사람과 사물의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한원진은 이 본연지성을 리기묘합으로서의 기질지성으로 보아 사람과 사물의 차별성을 주장하였다. 결국 두 사람의 성의 개념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이다. 이러한 호락논쟁은 퇴. 율시대의 사단칠정논쟁을 계승하여 인성의 내면구조를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한국 성리학의 이론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6, ‘세계화’에 눈뜬 실학의 선각자들

1) 북학파 실학의 선구 -洪大容-

병자호란 후 조선은 주전론(主戰論)과 주화론(主和論)이 대립하고 있었다. 주전론은 효종을 중심으로 송시열, 송준길, 김상헌 등이 앞장섰고, 주화론은 최명길 등이 중심이 되었다. 주화론과 맥을 같이 한 것이 북학파 실학이다. 북학파 실학은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하는데,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게 편리하다면 그 법과 제도가 오랑캐에서 나왔더라도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무역과 통상을 강

조하였고, 과학기술의 개발과 상공업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선진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학파의 실학정신은 당시로서 매우 충격적이고 진보적인 것이었다. 아울러 청은 야만이고 그들에게 당한 수모를 갚아야 한다는 대의명분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매우 용기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학파 실학의 기치를 높이 든 선구자가 바로 담헌 홍대용(湛軒 洪大容: 1731~1783)이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활동 무대는 충남 천원이었다. 그는 12살 때 김원행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였고,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등과 교유하였다. 29살 때에는 전남 동북에 은거중인 과학자 석당 나경적(石塘 羅景績)을 찾아가 그의 인격과 과학기술에 감명을 받고, 그와 함께 혼천의와 자명종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1762년 32살에 마침내 두 대의 혼천의와 자명종을 완성하여 천원 장명부락에 설치하고 이 사설 천문대를 '농수각(籠水閣)'이라 불렀다. 34살에 서장관으로 북경에 가는 숙부를 수행하여 북경에서 엄성(嚴誠), 반정균(潘庭均), 육비(陸飛) 등과 친교를 맺고, 당시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중국에 전해진 서양의 자연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았으니, 이는 박지원의 연행(燕行)보다 15년이나 앞선 것이다.

그는 1765년 지구는 둥글고 자전(自轉)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월식을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 우주 공간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고, 별에서 별을 보면 지구도 하나의 별이므로 지구가 우주 공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였다. 홍대용은 지구를 별의 하나로 보고 공간도 무한하고 별도 한이 없다 하여 무한우주론을 말하였다.

홍대용은 『임하경륜(林下經綸)』을 통해 사회개혁론을 말하고 있는데, 봉건적 신분제를 유지하되 다만 놓고 먹는 자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형벌을 주며, 재주가 있는 자는 중용해야 한다 하였다. 또한 병농일치의 원칙에 따라 봄부터 추수기에 걸쳐 양잠에 종사하는 한편, 한가한 날에는 효제(孝悌)를 익혀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왕실 직영의 큰 토지로서 백성을 수탈하는 내수사와 궁방전의 폐지를 주장하고, 사간원, 사헌부 등 간쟁기관을 혁파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적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하였다.

또한 중앙, 지방에는 면단위까지 학교를 설치하고, 면 중의 자제는 8세 이상이면 모두 교육을 실시하되, 효제충신(孝悌忠信)의 도(道)와 사어서수(射御書數)의 예(藝)를 가르친다 하였다.

홍대용은 북학파 실학의 선구자로서 뒤에 다가오는 박지원, 박제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개혁과 개방, 무역통상을 강조하는 북학파 실학의 선구자 홍대용이 충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충남유학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시대를 살고 있다. 활짝 열린 시대를 지향하고 개방과 통상을 추구했던 북학파의 실학정신은 분명 근대의 외침이었다.

2) 금석학의 세계적 권위자 -金正禧-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禧: 1786~1856)는 충남 예산출신으로 19세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요 서예가이다. 특히 그는 당시 중국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세계적인 금석학(金石學)의 대가였다. 그는 박제가의 문인으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24살 때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에 가서 당대 최고의 석학인 옹방강(翁方綱)과 완원(阮元)을 만나 평생 학문교류를 하고, 또 국경을 뛰어 넘는 학문 지도를 받았다. 당시

옹방강은 77세요 완원은 46인데 김정희는 24살의 청년이었다. 이들은 금석자료가 나오면 서로 교류하며 감정, 평가를 하였고, 나이를 넘어 국제적인 학문교류를 하였다. 후일 옹방강은 김정희를 ‘경술문장(經術文章) 해동제일(海東第一)’이라고 극찬하였고, 옹방강이 사후 그의 서적을 조선의 김정희에게 보냈다고 전해진다. 김정희는 청나라의 대 석학인 옹방강과 완원을 평생 추앙하고 존경하였으며, 이들의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김정희는 금석학의 대가로서 함흥의 황초령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고증하였고, 또 북한산비봉에 있는 비석이 조선 태조 건국시 무학대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진흥왕의 순수비임도 고증하였다. 그는 경학, 시문, 금석, 고고, 서화에도 뛰어났던 대학자요 예술가로서, 추사체라는 독특한 서법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 다른 실학자들이 천주교에 심취한 것과는 달리 불교에 관심을 가졌으며, 또한 경제치용이 아닌 북학파의 영향을 받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입장에서 실학을 하였다.

그는 스승인 박제가와 신작, 정약용, 이덕무 등의 실용, 실효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그런데 김정희는 실용적인 면보다 ‘실사구시’로 표방되는 실증적 학문 방법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는 종래의 송대 성리학이 의리론적 관점에서 경학을 해석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한대의 훈고학적 해석방법이 중시됨을 의미한다.

김정희는 북학파 실학의 전통을 계승한 실학자인데 특히 금석학의 대가였다. 그는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고증학적 편견에 빠지지 않고, 의리학과 실학을 조화롭게 이해하였다. 20대의 청년학자로서 당대 청나라의 석학인 옹방강, 완원과 학술교류를 하고, 또 그들의 사랑을 받고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은 것은 그의 학자적 위치를 잘 말해 주는 것이다.

그밖에도 충남은 성호 이익의 집안이 덕산에 옮겨 살면서 내포를 중심으로 이병휴, 이용휴, 이삼환, 이철환, 이가환 등 성호학파들의 활동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黃 義 東

충남대 철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동양철학과(문학석사)
충남대 대학원 철학과(철학박사)
청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충남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충남대 대학원장, 학생지원처장, 도서관장, 유학연구소장
울곡학회 회장
울곡학술대상 수상

〈저서〉

- 1, 울곡철학연구/ 경문사/ 1987
- 2, 한국사상/ 청주대 출판부/ 1990
- 3, 한국의 유학사상/ 서광사/ 1995
- 4, 울곡사상의 체계적 이해(1)-성리학편- / 서광사/ 1998
- 5, 울곡사상의 체계적 이해(2)-경세사상편- / 서광사 / 1998
- 6, 울곡학의 선구와 후예/ 예문서원/ 1999
- 7, 고봉 기대승의 철학연구/ 고봉학술원/ 2002
- 8, 성삼문/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2
- 9, 유교와 현대의 대화/ 예문서원/ 2002
- 10, 한국의 사상가 10인 울곡 이이/ 편저/ 예문서원/ 2002
- 11, 위기의 시대 유학의 역할/ 서광사/ 2004
- 12, 우계학파연구/ 서광사/ 2005
- 13, 울곡 이이/ 살림출판사/ 2007
- 14, 기대승/ 성균관대출판부/ 2008
- 15, 기호유학연구/ 서광사/ 2009
- 16, 한국유학사상연구/ 서광사/ 2011
- 17, 이울곡 읽기/세창미디어/ 2013
- 18, 울곡에서 도산으로/ 충남대출판문화원/ 2014
- 19, 역사의 도전과 한국유학의 대응/ 책미래/ 2015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충남, 예산》

김 갑 동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I. 머리말

현재의 예산은 과거의 대흥과 덕산이 합쳐진 지역이었다. 특히 예산 지역에는 임존성이라는 훌륭한 방어 시설이 있었다. 현재는 예산군 대흥면의 봉수산에 임존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지역은 본래 백제의 영역으로 견고한 성이 축조되어 있던 곳이었다. 성의 규모는 주위가 5천1백9십4척(尺)이었고 그 안에는 3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임존성의 성격은 백제와 신라와의 전쟁기간에도 이어져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즉 백제의 장군이었던 흑치상지(黑齒常之)가 무왕의 종자(從子)였던 복신(福信)을 비롯한 지수신(遲受信) 등과 같이 당나라 군대를 상대로 항거를 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 전투에서 결국은 흑치상지가 패배하여 당에 항복을 하였다. 그 후 끝까지 항전하던 임존성은 백제의 항장(降將) 흑치상지의 공격으로 함락되기에 이르렀다.

이 임존성은 신라말 고려초의 시기, 즉 후삼국기에 와서 다시 후백제와 태봉·고려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게 되어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몽고와의 항전에도 참여하였으며 당(唐)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의 사당이 있기도 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나말려초의 전란기에 예산 지역과 임존성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그 이후 예산 지역의 동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예산현과 대흥군의 성립

신라가 하대로 들어오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자 전국에서 농민반란이 쉴새없이 일어났다. 그러다

가 결국은 몇 개의 세력으로 뭉쳐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북쪽에서는 궁예가 세력을 잡기 시작했고 남쪽에서는 견훤이 세력을 잡아 후백제를 칭하였다. 이들은 서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였고 예산과 임존성 지역도 이러한 조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A-① 당(唐) 소종(昭宗) 경복(景福) 원년, 신라 진성왕 재위 6년에 아첨하는 소인들이 왕의 곁에 있어 정권을 농간함에 기강은 문란하여 해이해지고 게다가 기근(饑饉)이 들어 백성들이 유리(流移)하고 도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견훤은 은근히 반심(叛心)을 품고 무리들을 모아 서남쪽 주현(州縣)들을 공격하니 가는 곳마다 호응하여 그 무리가 달포사이에 5천여 인에 달하였다. 드디어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공공연히 왕을 일컫지 않고 자서(自署)하여 ‘신라서면도통(新羅西面都統)·지휘병마(指揮兵馬)·제치지절도독(制置持節都督)·전무공등주군사(全武公等州軍事)·행전주자사(行全州刺史)·겸어사중승(兼御史中丞)·상주국(上柱國)·한남군개국공(漢南郡開國公)·식읍이천호(食邑二千戶)’라 칭하였다.《三國史記》卷50 甄萱傳)

A-② 광화(光化) 3년 경신(庚申)에 또 태조(太祖)에게 명하여 광주(廣州)·충주(忠州)·당성(唐城)·청주(靑州, 혹은 청천(靑川)이라고도 함)·괴양(槐壤) 등을 정벌케 하였는데 다 이를 평정하였다.《三國史記》卷50 弓裔傳)

A-①은 892년의 일로 견훤이 무진주(武珍州, 현재의 전남 광주)에 도읍을 정하고 관직을 자서(自署)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관직 중에 전무공등주군사(全武公等州軍事)가 보인다. 이는 당시 존속했던 지(知) + ○주(州) + 제군사(諸軍事) 류의 관직으로 ○주(州)의 군사권을 관장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 여기서 전주·무주·공주는 현재의 전주·광주·공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당시 신라 9주(州) 중 3주(州)를 가리키는 것으로 광역의 주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당시 견훤은 전주·무주·공주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당연한 결과로 웅주의 관할을 받고 있던 예산 내지 임존성도 견훤의 후백제 영역이 되었다는 뜻이 된다. 과연 그랬을까.

필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가 이 관직을 ‘자서(自署)’했기 때문이다. 신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자칭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전혀 아무런 근거없이 자칭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 지역과 미약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을 맺고 있기는 했다고 본다. 임존성 지역도 공주의 통제를 미약하게 받았을 지 모르지만 대체로 독립성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것이 당시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라가 중앙통제력을 잃으면서 전국의 각 지역은 성(城)을 중심으로 자위(自衛)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B. (이충언(李忠言)은 신라말에 벽진군(碧珍郡)을 보호하고 있었다. 때에 도적이 충척(充斥)하자 충언은 성을 굳게 지키니 백성들이 그에 의뢰하여 편안하였다. 태조가 사람을 보내 함께 힘을 다하여 난을 평정할 것을 효유(曉誘)하였다. 충언이 글을 받아보고 심히 기뻐하여 그 아들 영(永)을 보내 병사를 거느리고 태조를 따라 정벌케 하였다. 영이 그 때 나이 18세였는데 태조가 대광(大匡)

사도귀(思道貴)의 딸과 결혼시키고 총언을 본읍장군(本邑將軍)에 배수(拜授)하였다. (《高麗史》卷 92 李憲言傳)

신라말기에 전국 각 지역의 지방세력은 지역민들을 거느리고 자체 방어에 힘쓰고 있었다. 벽진군도 원래는 강주(康州) 소속의 군(郡)인 성산군(星山郡)의 영현(領縣) 신안현(新安縣)에서 개명된 것이지만 강주나 성산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임존성의 경우도 웅주의 통제를 강고하게 받고 있지 않아 후백제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다가 A-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0년 경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황해도 지역을 차지한 궁예가 남진정책을 쓰면서 점차 궁예의 세력권 안에 포함된 것 같다. 궁예는 자신에게 귀순한 왕건을 시켜 경기도 광주 지역을 비롯하여 남양만 일대, 청주, 충주 괴산 등지를 공략하였는데 이 때 궁예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충남 당진군 면천면 출신인 박술희(朴述熙)가 18세에 궁예의 위사(衛士)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또 궁예 밑에서 기병장군(騎兵將軍)으로 있다 918년 왕건을 옹립하여 개국 1등 공신이 된 복지겸(卜智謙)도 당진 출신이었다. 당진군 면천면은 경기도 남양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웃한 지역으로 당성(唐城)이 궁예의 수중에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술희나 복지겸이 궁예 밑으로 간 것이라 생각한다.

그 후 궁예는 그 말년에 이르러 더 남진하여 공주지역까지 수중에 넣게 되었다. 그리고 이흔암(伊昕巖)이 웅주(熊州)에 진주하였다. 이에는 다음 기록이 참고 된다.

C-① 이흔암(伊昕巖)은 궁마(弓馬)를 업으로 하여 다른 재주는 없었으나 이익을 보면 빨리 구하며 궁예를 섬겨 아부하여 임용되었다. 궁예말년에 군사를 거느리고 웅주를 습격하여 취하고 여기에 진수(鎭守)하였다. 그러다가 태조가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화심(禍心)을 품어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옴으로 사졸(士卒)이 많이 도망하고 웅주는 다시 백제(百濟)의 소유가 되었다. (《高麗史》卷127 伊昕巖傳)

C-② (태조 원년 8월) 계해(癸亥)일에 웅주·운주 등 10여 주현(州縣)이 배반하여 백제에 붙었으므로 전시중(前侍中) 김행도(金行濤)를 명하여 동남도초토사지아주제군사(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를 삼았다. (《高麗史》卷1 太祖世家)

C-①은 궁예 말년에 이흔암이란 자가 공주를 습격하여 취하고 여기에 진주하고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궁예 말년에는 임존성도 궁예의 영역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왕건이 왕위에 즉위하자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 하여 서울인 철원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그 때문에 공주는 다시 후백제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C-②는 인간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공주가 후백제에 넘어가자 운주 등 10여 주현도 후백제에

가담하였다. 이 10여 주현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임존성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이었던 임존성이 백제의 부흥을 표방한 후백제에 붙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자 고려는 전에 시중(侍中)을 지낸바 있던 김행도를 동남도초토사지아주제군사(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를 삼아 이에 대비케 하였다. 시중은 당시 최고의 관부였던 광평성의 장관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위였다. 그러한 지위에 있던 자를 아주(牙州, 현재의 충남 아산)에 파견한 것은 웅주·운주 등을 상실한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웅주·운주 등 10여 주현이 후백제에 붙은 여파는 의외로 컸다. 이 일이 있은 직후 중앙에서 청주인으로 수도 철원에 가 있던 순군리(循軍吏) 박춘길(林春吉)이 반란을 일으키다 살해당하였다. 또 이에 자극을 받은 청주 현지에서 파진찬(波珍粲) 진선(陳瑄)·선장(宣長)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이 반란도 실패하였지만 이러한 일련의 동향은 옛 백제 지역이 될 수 있으면 백제의 부흥을 표방한 후백제에 붙으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자 왕건은 태조 2년(919) 청주에 직접 행차하여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성을 쌓아 유사시에 대비케 하였다. 또 예산에 사람을 보내 최남단 방어전선을 구축하였다. 오산성(烏山城)을 고쳐 예산현(禮山縣)이라 하고 대상(大相) 애선(哀宣)과 홍유(洪儒)를 보내어 유민(流民) 5백여 호를 모아 편안히 살게 하였다. 이를 보면 태조 원년(918) 웅주·운주 등 10여 주현이 후백제 쪽으로 넘어갈 때 임존성은 행동을 같이 했지만 오산성은 빠졌던 것 같다.

오산성은 본래 백제의 오산현(烏山縣)이었으나 신라 경덕왕(景德王)때에 고산현(孤山縣)으로 개명된 곳이다. 따라서 당시의 지명으로 한다면 고산현이라 표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백제시대의 명칭인 오산으로 표기된 것은 그 지역민들이 개정된 명칭보다 백제시대의 옛지명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 오산현이 아니고 오산성이라 한 것은 당시 현이나 군이 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오산성은 경덕왕 때에 임성군(任城郡)의 영현이 되었다. 임성군은 백제의 임존성을 말하는 것인데 평시 같으면 임존성이 오산성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말려초의 후삼국기에는 각 군현이 거의 타 군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였으므로 오산성과 임존성은 항배를 달리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왕건은 예산현을 재건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 지역에서 고려와 견훤과의 직접 충돌은 없었다. 다만 견훤이 신라의 서부 지역, 즉 현 경상도의 서부 지역을 공략하는 정도였다. 태조 3년(920) 견훤이 보병과 기병 1만을 거느리고 대야성(大耶城; 현재의 경북 합천)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진례성(進禮城)까지 진출했으나 신라의 요청을 받은 고려 군사의 도움으로 군사를 돌이킬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부터 견훤은 고려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견훤이 이렇듯 공세를 취하고 있을 때 왕건은 각 지역의 호족들을 포섭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태조 5년(922) 하지현장군(下枝縣將軍) 원봉(元奉), 명주장군(溟州將軍) 순식(順式), 진보성주(眞寶城主) 홍술(洪術) 등이 귀순해왔으며 그 이듬해에도 명지성장군(命旨城將軍) 성달(城達)과 벽진군장군(碧珍郡將軍) 양문(良文) 등이 귀부해왔던 것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견훤은 조물성(曹物城; 金烏山城으로 추정)을 공격하였으나 왕건군의 도움으로 실패하였다.

그러자 이제는 왕건의 고려군이 대규모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때에 임존성에서도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다음 기록을 보자.

- D-①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유금필(庾黔弼)을 보내어 백제를 공격하였다.《高麗史》卷1 太祖世家 8年 10月)
- D-② 정서대장군 유금필을 보내어 후백제의 연산진(燕山鎭)을 공격해서 장군 길환(吉喚)을 죽이고 또 임존군(任存郡)을 공격해서 3천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高麗史節要》卷1 太祖 8年 10月)
- D-③ 왕이 견훤에게 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윤빈(尹邠)을 해안에서 쫓았을 때는 노획한 갑옷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추조(鄒祖)를 변성(邊城)에서 잡을 때는 엎드려진 시체가 들판을 덮었으며 연산군(燕山郡)에서는 길환(吉喚)을 전군(軍前)에서 목베고 마이성(馬利城)가에서는 수오(隨晤)를 깃발 아래에서 죽였으며 임존성(任存城)을 빼앗던 날에는 형적(邢積) 등 수백 명이 목숨을 버리었고 청주(靑州)를 부수었을 때는 직심(直心) 등 4,5명이 머리를 바치었소……”《高麗史》卷1 太祖世家 11年 正月)
- D-④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임존성을 공격하여 형적 등 3천여 명을 죽이고 잡았다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20 忠淸道 大興縣 古跡 任存城)

위의 전투가 있었던 당시 임존성의 공식적인 명칭은 임성군(任城郡)이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백제 시대의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앞의 오산성(烏山城)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개명되었다 할 지라도 그 지역민들은 백제시대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 아마도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였던 이 지역민들의 긍지와 자존심도 작용하였다고 본다.

한편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정서대장군 유금필이 후백제의 연산진(燕山鎭; 현재의 충북 문의)을 친 후 이어 임존성을 공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상자가 3천여 명이나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D-②). 그러나 D-③에서 보듯이 사망자는 수백 명이었고 나머지는 항복했거나 포로가 된 자들이었을 것이다. 사상자만 3천 명이었으니 이 전투에 참가한 병력의 수자는 적어도 5천명 이상은 되었리라 짐작된다. 임존성 전투에 5천여 명이나 참가했다는 것은 결코 그 전투가 작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임존성을 지키던 후백제측의 지휘관은 형적이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이 전투에서 후백제군이 패함으로써 임존성은 이제 고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백제부흥운동

의 거점이었던 이 지역이 후백제에 가담하여 백제를 다시 세우려 하였으나 왕건의 군사력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되었다. 신라 멸망 후에는 신라와 당군에게 끝까지 항거하였으며 후삼국기에는 백제의 자존심을 지키려다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을 전후하여 통일신라시대 임성군으로 불리우던 이 지역은 대흥군(大興郡)으로 개명되었던 것 같다. 《고려사(高麗史)》에는 그 개명시기가 ‘고려초(高麗初)’라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고려초’의 시기는 고려 태조대(太祖代)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임존성을 정벌하기는 했으나 이 지역을 회유할 필요가 있어 대흥군이라 개명한 것이 아닌가 한다. ‘대흥(大興)’이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 크게 흥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려초’에 개명된 군현의 명칭에는 자연적인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산(山) · 천(川) · 곡(谷)’ 등의 명칭을 붙인 곳도 있지만 좋은 의미로 지역민들이 평안하라는 의미에서 ‘평(平) · 안(安) · 령(寧)’ 등의 글자를 붙이기도 하였고 그 고을이 번성하고 풍성하라는 의미로 ‘흥(興) · 창(昌) · 부(富) · 풍(豐)’ 자를 붙여준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이로써 임존성은 이제 고려 영역의 일부분으로써 후일 후백제 정복의 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임존성은 통일신라에 이르러 임성군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백제시대의 명칭인 임존성으로 명명되었다. 그것은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신라 말 신라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후백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궁예 말년 이흔암의 공격을 받아 궁예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918년 궁예 밑에 있던 왕건이 정변으로 왕위에 오르자 혼란을 틈타 웅주 · 운주 등과 같이 후백제로 귀순하였다. 옛 백제 지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러자 왕건은 이웃지역인 오산성에 예산현을 설치하여 임존성을 견제하였다. 그 후 925년 왕건은 결국 유금필을 보내 임존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이리하여 다시 고려의 영역에 편입된 임존성은 대흥군(大興郡)으로 개명되어 후백제 정복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Ⅲ. 고려의 남진정책과 예산진

왕건의 고려군과 견훤의 후백제군은 태조 8년(925) 조물군(曹物郡)에서 만나 싸웠으나 승패를 결정 짓지 못하였다. 그러자 양 진영은 서로 인질을 맞교환함으로써 일시적인 화의를 맺었다. 견훤측에서는 그의 외생(外甥) 진호(眞虎)를 고려에 인질로 보냈고 왕건측에서는 그의 사촌동생 왕신(王信)을 후백제에 인질로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926년 4월 견훤이 볼모로 보낸 진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에 견훤은 그를 고려측에서 죽였다고 여겨 왕신을 죽이고 군사를 몰아 웅진으로 진군하였다. 이에 왕건은 여러 성에 명을

내려 성벽을 굳게 지키고 나와 싸우지 말도록 하였다. 이때 견훤은 웅진을 거점으로 하여 북진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왕건측에서 큰 대응이 없자 물러난 것 같다. 전투상황을 전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왕건은 공주와 흥성이 후백제 쪽에 있는 상황에서 선불리 견훤에게 대항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왕건은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운주를 공격하였다. 태조 10년(927) 3월 운주를 공격하여 그곳의 성주(城主) 공준(競俊)을 성 아래에서 패배시켰다. 이때 공준은 고려군에 항복한 것 같다. 태조 19년 후백제 신검과 일리천(一利川, 현재의 경북 선산)에서 마지막 대전을 벌일 때 공준이 지휘관의 하나로 참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투에서 종래 임존성을 지키고 있던 군대도 많은 활약을 했을 것임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운주를 획득한 왕건의 다음 목표는 공주였다. 태조 10년 4월 운주를 획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왕건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공주를 습격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은 실패하였다. 공산성(公山城)의 험준한 지세와 견고한 성벽을 깨뜨리지 못하였다. 공산성은 석성(石城)으로 주위가 4천 8백 50척이었고 높이가 10척이나 되는 성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왕건은 착실히 전투준비를 한 후에 후백제를 공략하리라 마음먹었다. 그 준비작업은 성(城)을 쌓는 축성(築城)사업으로 나타났다. 먼저 탕정군(湯井郡, 현재의 충남 온양)에 행차하여 성을 쌓았다. 그것은 기록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고려사》에는 단순히 왕건이 “탕정군에 행차하였다(幸湯井郡)”라고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 유금필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였음에 틀림없다. 태조 11년 7월 왕건이 삼년산성(三年山城; 현재의 충북 보은)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청주에 행차하였는데 후백제군이 청주를 침략하자 탕정군에 성을 쌓고 있던 유금필이 꿈에 계시를 받고 달려가 구해주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운주의 옥산(玉山)에도 성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옥산이 현재의 어디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여양산성(麗陽山城)이나 월산성(月山城)이 아닌가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옛날에 있었던 산성으로 이 둘만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후 태조 왕건은 남진정책의 전초기지로서 천안부(天安府)를 설치하였다. 태조 13년 8월 대목군(大木郡)에 행차하여 동·서두솔(東西兜率)을 합쳐 천안부를 삼고 도독(都督)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대승(大丞) 제궁(弟弓)이 도독부사(都督府使)가 되고 원보(元甫) 엄식(嚴式)이 부사(副使)가 되었던 것이다. 후일 후백제와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천안에 도독부를 두어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편 천안 뿐 아니라 예산에도 일부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라 판단된다. 그것은 고려 태조 17년의 기사에 예산진(禮山鎭)이란 표현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기록을 보자.

E. (태조 17년 5월) 예산진(禮山鎭)에 행차하여 조(詔)하기를 “지난 날에 신라의 정사가 쇠하여지니 못도둑이 다투어 일어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황야에 해골을 드러내게 되었다. 전주(前主)가 분쟁하는 무리들을 굴복시켜서 방국(邦國)의 터전을 열더니 말년에 이르러 해독을 하민(下民)에 끼치고 사직을 전복시켰다. 짐이 그 위태로운 뒤를 이어받아 이 새 나라를 이룩하였나니 상처받은 백성을 노역(勞役)하게 함이 어찌 짐의 본 뜻이리오. 다만 나라를 창건한 때인지라 할 수 없는 일이다. 풍우(風雨)를 무릅쓰며 주진(州鎭)을 순찰하고 성책(城柵)을 수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의 난을 면하게 하고자 함이다. 이리므로 남자는 다 싸움에 종사하고 부녀(婦女)도 오히려 공역(工役)에 나아가게 되니 노고(勞苦)를 참지 못하여 혹은 산림에 도망쳐 숨고 혹은 관부에 호소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 지를 알 수 없도다. 왕의 친족이나 권세가들이 어찌 방자하고 횡포하여 약한 자를 억눌러서 나의 백성을 괴롭게 함이 없다 할 수 있으랴.

내 한 몸으로 어찌 능히 집집마다 가서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소민(小民)들은 이리므로 호소할 방도가 없었으니 저 창천(蒼天)에 울부짖는 것이다. 마땅히 너희들 공경장상(公卿將相)으로 국복(國祿)을 먹는 사람들은 내가 백성 사랑하기를 아들같이 여기고 있는 뜻을 잘 알아서 너희 녹음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에 가신(家臣)의 무지(無知)한 무리를 녹음에 보내면 오직 취렴(聚斂)만을 힘쓰고 마음대로 빼앗아간다면 너희들이 또 어찌 능히 이를 알 수 있겠는가. 비록 혹은 이를 안다 하더라도 금제(禁制)하지 않고 백성 중에 논소(論訴)하는 자가 있는데도 관리가 사정(私情)에 끌려 숨기고 두호함으로서 원망과 비방하는 소리가 일어남이 주로 이에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타이른 것은 이런 줄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더욱 힘쓰게 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잘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그 령(令)을 어긴 자는 따로이 연좌(連坐)로 죄를 물을 것이로되 오히려 타인의 허물을 숨기는 것을 현명한 짓으로 생각하여 일찍이 들어 아뢰지 않으면 선악의 사실을 어찌 들어 알 수 있으리오. 이와 같으니 어찌 절개를 지키고 허물을 고친 자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나의 훈계하는 말을 잘 준수하고 나의 상벌을 청종(聽從)하도록 하라. 죄 있는 자는 벌이 자손에게 미칠 것이며 공이 많고 죄가 적으면 상벌을 헤아려 행할 것이다. 만약에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 녹봉(祿俸)을 추탈(追奪)하고 혹은 1, 2, 3, 5, 6 년으로부터 종신토록 반열(班列)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만약에 뜻이 봉공(奉公)에 간절하고 시종토록 허물이 없으면 살아서는 영록(榮祿)을 누리고 사후에는 명가(名家)라 일컫게 될 것이며 자손에 이르기까지 우대하여 상을 가할 것이다. 이는 다만 오늘 뿐 아니라 만세(萬世)에 전하게 할 것이며 규범을 삼게 할 것이다.

백성을 위하여 진소(陳訴)하는 자가 있는데 소환하여도 오지 않으면 반드시 재차 소환하여 먼저 장(杖) 열대를 쳐서 령(令)을 어긴 죄를 다스리고 나서 바야흐로 범(犯)한 바 죄를 논하도록 하라. 만약에 관리가 일부러 천연(遷延)하거든 일자(日字)를 계산하여 벌책(罰責)할 것이며 또 위세를 믿고 권력을 믿어 그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이름을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高麗史》卷2 太祖世家 17年 5月)

여기서 보듯이 예산이 언제부터인가 예산진으로 불리워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鎭)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군대가 와서 머무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진의 명칭이 처음 보

이는 것은 신라의 태종 무열왕 5년이다. 이 때 무열왕은 하슬라(何瑟羅 ; 현재의 강원도 강릉)의 땅이 말갈(靺鞨)과 인접한 곳이라 하여 경(京)을 파(罷)하고 하슬라주(何瑟羅州)라 개명하고 도독(都督)을 머무르게 하는 동시에 실직(悉直 ; 현재의 강원도 삼척)에 북진(北鎭)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도독은 강릉에 있었지만 그 군사력의 일부는 삼척에 주둔했음에 틀림없다. 선덕왕 3년(782) 서해안 지대의 방어를 위해 설치된 패강진(溟江鎭)에 대감(大監)과 제감(弟監)과 같은 무관이 설치된 것이나 흥덕왕 3년(828) 왕으로부터 군사 1만을 받아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한 청해진(淸海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군대가 주둔한 진(鎭)이 되었을까. 이미 태조 2년 예산현이 성립할 때 군대가 주둔하여 진으로 불리워졌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 본격적인 군대의 주둔이 시작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려가 탕정군 및 운주의 옥산(玉山)에 성을 쌓고 천안부가 설치되는 무렵이 아닌가 한다. 즉 천안부에 도독이 설치되고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 일부가 예산에 주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태조 13년(930) 천안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남진정책이 실시되고 그 전초기지로 예산진이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는 고창군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이 대승을 거둔 후로 머지않아 이 지역에서 큰 전투가 벌어질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예산진에 주둔한 군대는 천안부의 통제를 받았던 것 같다. 당시 왕건의 군대는 운주와 천안 2군데에 집중 배치되었으나 예산은 천안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산현이 천안부의 속현(屬縣)이 된 것도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반면 임존성에는 운주 관할의 군대가 주둔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곳은 고려 현종 9년 홍주(洪州 ; 현재의 충남 홍성)의 속군(屬郡)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시대에는 임성군(任城郡, 임존성)과 그 영현(領縣)으로 존재했던 고산현(孤山縣 ; 현재의 충남 예산)이 고려시대에는 그 유대관계가 끊어지고 임존성은 운주의 속군으로, 예산현은 천안부의 속현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예산진에 왕건이 직접 행차하여 내린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군대에 나가거나 부역에 동원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공경장상(公卿將相)들이 자신들 녹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수탈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행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태조 17년의 시점에서 그것도 왕경(王京)이 아닌 예산에 와서 이런 조서를 반포했을까. 그것은 그가 이 지역에 직접 행차하여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태조 2년 청주가 순역(順逆)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와언(訛言)이 자주 일어나자 태조 왕건이 친히 이 지역에 순행(巡幸)하여 민심을 위무(慰撫)하였던 예가 있는 것이다. 예산 일대는 아직도 후백제와의 접경지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편 이 지역에 녹읍을 갖고 있는 이나 지방세력들에게는 지나친 수탈로 민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경고를 하였다. 예산 일대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곡창지대로 농민들의 불

만은 흥작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량미의 부족을 초래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그래야만 앞으로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군사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서가 발표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운주 일대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F. (태조 17년) 9월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운주(運州)를 정벌하니 견훤이 이 소식을 듣고 갑사(甲士) 5천 명을 뽑아 이르러 말하기를 “양편의 군사가 서로 싸우면 형세를 다 보전하지 못하겠소. 무지한 병졸이 살상을 많이 당할까 염려되니 마땅히 화친을 맺어 각기 국경을 보전합시다.” 하였다. 왕이 여러 장수를 모아 의론하니 유금필(庾黔彌)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형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사오니 원컨대 임금께서는 신(臣) 등이 적군을 쳐부수는 것만 보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였다. 저 편에서 미처 진을 치기 전에 강한 기병(騎兵) 수천 명으로써 돌격하여 3천여 명을 목베고 술사(術士) 종훈과 의사(醫師) 훈겸, 용장(勇將) 상달·최필을 사로잡으니 웅진 이북의 30여 성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항복하였다.《高麗史節要》卷1)

이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은 대승하여 후백제군을 3천여 명이나 목베었으니 얼마나 큰 전투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왕건군의 주요 구성원은 중앙군도 있었을 테지만 천안이나 예산진, 임존성, 운주의 주둔군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예산진에서 내린 조서도 이 전투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 전투가 왕건군의 선제공격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웅진 이북의 30여 성이 왕건에게 귀순하였다. 이제 왕건은 후백제와의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 이듬해인 935년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에 귀순해왔고 뒤이어 신라의 경순왕도 나라를 들어 고려에 바쳤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 견훤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후백제의 신검이었다. 그 마지막 전투는 경북 선산의 일리천(一利川)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이 전투에는 왕건측에서 9만여 명 가까운 군대가 참여하였다. 이에는 본래부터 왕건 휘하의 군대도 있었겠지만 지방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도 많이 참여하였다. 강원도 명주에서 귀순해왔던 왕순식(王順式)이나 경상북도 풍기(豊基)에서 지기주제군사(知基州諸軍事)를 지냈던 강공훤(康公萱) 등이 지휘관으로 참전하였는데 그들 휘하의 군대는 그들이 평소에 거느리던 군대라 추측되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태조 10년 왕건에게 항복한 운주성주(運州城主) 공준(兢俊)도 참여하였다. 그 휘하에는 운주 지역의 군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예산진이나 임존성의 군대도 참여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요컨대 고려 태조 왕건은 임존성을 공취한 뒤에 태조 10년(927) 3월 운주까지도 손에 넣게 되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왕건은 그해 4월 곧바로 웅주까지 공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태조 11년 탕정성과 운주 옥산에 성을 쌓으면서 착실한 남진 준비를 하였다. 운주 옥산에는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그 병력의 일부가 임존성에도 주둔하게 되었다. 태조 13년(930) 고창군 전투에서 대승을 한 왕건은 천안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후백제 정벌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때 예산

에도 천안도독부의 통제를 받는 일부 병력이 주둔하여 예산진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후일 예산현은 천안부의 속현이 되고 대흥군은 홍주의 속군이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태조 17년에 이르러 예산진에 행차하여 민심을 추스린 왕건은 그해 9월 운주 부근에서 다시 후백제 견훤과 큰 전투를 벌여 대승하였다. 이에 대세는 왕건에게 기울어 후백제 견훤과 신라의 경순왕이 귀순해왔고 태조 19년(936) 신검과의 일리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런데 태조 17년의 운주전투나 신검과의 일리천 전투에 예산진이나 임존성의 군사들이 동원되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IV. 고려 후기 이후의 예산

임존성은 고려 후기 몽고가 침략하면서 다시 한번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즉 고려 고종 23년 몽고군의 일부가 충남 지역에 침입하여 온양과 대흥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에 다음 자료가 참고된다.

G-① (고종 23년 9월) 정사(丁巳)일에 몽고군이 온수군(溫水郡)을 포위하니 군리(郡吏) 현려(玄呂) 등이 문을 열고 나가 싸워 이들을 크게 패퇴(敗退)시켰다. 적의 머리 2급(級)을 베고 화살과 돌에 맞아 죽은 자가 2백여인이었고 노획한 병장기(兵仗器)가 심히 많았다. 왕은 그 군의 성황신(城隍神)이 몰래 도와준 공이 있다 하여 신호(神號)를 더 봉해주고 현려를 군의 호장(戶長)으로 삼았다.《高麗史》卷23 高宗世家 高宗 23년 9월)

G-② (고종 23년 12월) 계묘(癸卯)일에 대흥(大興)의 관리가 보고하기를 “몽고병이 성을 공격하기를 수 일 동안 하니 문을 열고 나가 싸워 이를 크게 무찌르고 병장기를 많이 노획하였습니다” 하였다.《高麗史》卷23 高宗世家 高宗 23년 12월)

G-③ (고종 23년 12월) 몽고병이 와서 대흥의 성을 공격하기를 수일 동안 하니 문을 열고 나가 싸워 이들을 크게 패퇴시키고 병장기를 많이 노획하였다.《高麗史節要》卷16)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온수군(溫水郡; 현재의 충남 온양)과 대흥현에서 몽고군과 싸워 이긴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전투는 틀림없이 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G-② ③을 통해 알 수 있고 G-①에서는 단순히 ‘개문(開門)’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도 ‘성문(城門)’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성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같이 산성(山城)에 입보(入保)하여 싸웠다고 할 때 온수군의 경우는 배방산성(排方山城), 대흥현의 경우는 임존성(任存城)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이 시기 임존성은 또 한번 국난극복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조선 태종대에 지방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이 지역은 대흥현으로 강등되었다. 조선 숙종 7년에

는 현종의 태실(胎室)을 모셨던 관계로 대흥군으로 승격하였다. 그러다가 1914년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질 때 대흥군은 면이 되어 예산군 휘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예산군은 조선시대에는 내내 현으로 존재해 오다 1895년에 예산군으로 승격되어 있었다. 이로써 대흥은 입장이 바뀌어 예산의 통제를 받는 위치로 전략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대흥현의 임존성은 몽고의 침입 때 향전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그 후 숙종 7년 대흥군으로 승격하여 예산군과 동일한 지위를 누렸던 이곳은 1914년 예산군 휘하의 대흥면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후삼국 시대 이후의 예산과 임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신라시대 임성군(任城郡)으로 개명되었던 현 대흥면 지역은 후삼국기에도 여전히 백제시대의 명칭인 임존성(任存城)으로 불리워졌다. 그것은 백제시대의 옛 전통을 고수하려는 지역민들의 의지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미약하나마 후백제 세력의 영향을 받았던 임존성 지역은 궁예 말년 이흔암(伊昕巖)이란 장군이 웅주(熊州)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궁예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왕건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혼란을 틈타 웅주·운주(運州) 같이 후백제로 넘어들어왔다.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였던 이 지역이 후백제에 가담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자 왕건은 919년 아직 후백제에 들어가지 않은 오산성(烏山城)에 예산현(禮山縣)을 설치하고 유민(流民)들을 안집(安集)케 함으로써 장래 남진 정책의 한 기지로 활용하려 하였다. 결국 태조 8년(925) 왕건은 군대를 휘몰아 임존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이 전투는 후백제 측에서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난 대규모 전투였다. 그리고 임존성을 대흥군(大興郡)으로 개명하였다.

둘째 임존성을 빼앗은 왕건은 곧 이어 태조 10년(927) 운주까지 공격하여 점령하고 웅주(공주)를 쳤으나 실패하였다. 이로써 예산현과 대흥군(임존성)은 둘 다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게 되었다. 왕건은 태조 11년(928) 탕정성(湯井城)과 운주 옥산(玉山)에 성을 쌓고 운주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 때 운주의 일부 군대가 임존성에도 머무르게 되었다. 태조 13년(930)에는 왕건이 고창군(古昌郡) 전투에서 견훤군을 대파하고 천안(天安)에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여 남진정책의 총괄기지로 삼았다. 이 때 천안 지역의 군대 일부가 예산에 머무르게 되면서 예산진(禮山鎭)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후일 대흥군은 운주의 속군이 되고 예산현은 천안부의 속현이 된 배경이 되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주군(主郡)인 임성군(任城郡)과 영현(領縣)인 고산현(孤山縣)으로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두 고을은 이제 분리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태조 17년(934)의 운주 전투나 태

조 19년(936)의 일리천(一利川) 전투에서 일정한 활약을 하였다.

셋째 임존성은 고려 후기 몽고가 침략해 왔을 때 다시 한 번 국난 극복의 중심지가 되었다. 몽고군과의 전투에서 온 군민이 합심하여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또 조선 태종대에 대흥현으로 강등되었던 이 지역은 숙종 7년(1681) 현종대왕의 태실(胎室)이 있었던 관계로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예산군에 편입되어 지금까지 대흥면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임성군으로서 고산현을 관할하던 통일신라시대의 입장이 이제는 면으로서 예산군의 통제를 받는 위치로 바뀌었던 것이다. 결국 임존성은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후삼국기나 고려후기 몽고의 침입 때도 대규모 전투의 전장이 되었다.

문묘제도연구

송 재 철

(예산문화원 자문위원)

- (1) 문묘 : 대성전 때 공자를 정위로 하고 중앙에 사성(안자, 중자, 자사, 맹자)을 봉안하고 동서로 공문 10철과 송조육현을 배향하였다. 별채인 동무에는 중국의 명현47위와 우리나라의 명현9위 별채인 서무에는 중국의 명현47위와 우리나라 명현9위를 배향하였다
- (2) 광복 후 1947년 전국 유림총회에서 10철사 6현중 정호, 주희의 4현의 위패를 매안하고 동국 18현을 승당 문묘에 배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3) 원래 문묘 이전에는 태묘라하여 주의 주공을 모시고 춘추 중절에 제향하였다. 논어 팔일편 14절에 오종주, 논어 팔일편 15절에 자입태 묘라는 것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 (4) 중국의 한나라 개국시에 유교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여 국학에 주공을 선승으로 공자를 선자로 배향하고 제례를 지내 수나라까지 성승교육을 하였다.
- (5) 당나라가 개국하여 국학에 공자를 개원년간에 문선왕으로 추봉하고 선승으로 안자를 선사로 바꿨다.
- (6) 이후 남북조시에 송대에서야 비로소 신유학의 학습으로 화이의 차별화를 꾀하여 남송의 주자대에서 도통을 중심으로 북송 원성연대에 공자에게 지성이라는 시호가 더해지고 공자를 정
- (7) 이후 원나라 시에 공자에게 대성의 시고가 가상되고 이로써 중원의 문묘 체계가 확정되었으며 훈고보다는 도통을 중심으로 문묘배향 향사가 이루어졌으니 이때에 신유학에 공현한 북송의 정호, 정이, 한유, 주렴계, 소강절과 남송의 주희를 무묘에 종사하였다. 이상이 중원의 문묘제도이다.
- (8) 우리나라는 신라 진덕여왕시 김춘추(후 무열왕)가 당에 사신으로 갔다가 당태종의 윤허로 문묘배위도 등을 가지고 처음으로 돌아왔다.
- (9) 고려 현종 11년에 조종에서 최치원을 동 13년에 설총을 문묘에 종사하기로 결정한 후 충선왕대에 가서 대성전을 건립 대성지성 문성왕을 정위로 4성과 주자 성리학의 문묘제도를 원제에 따라 이루어졌다.
- (10) 충숙왕 6년에 안향이 문묘에 배향되었다.
- (11) 성종대에 지역의 연고 선현들을 향교 문묘에 배향하였으나 사전부재자의 남사 문제가 제기되어 가묘에 이향시켰다.

(12) 중종 12년에 정몽주가 문묘에 배향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묘에서 향사하던 선현선사들을 지역을 연고로 서원을 건립 향사하기 시작한 것이 서원의 시초이다.

(13) 광해조 3년에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의 오현이 문묘에 종사되었다.

(14) 숙종 6년에 이이, 성혼 선생이 문묘에 배향되었으나 숙종 15년에 양 선생이 출향되었다가 숙종 20년에 다시 양 선생이 복향되었다.

(15) 숙종 43년에 김장생이 문묘에 배향되었다.

(16) 영조 32년에 송시열, 송준길이 문묘에 배향되었다.

(17) 영조 40년에 박세채가 문묘에 배향되었다.

(18) 정조 20년에 김인후가 문묘에 배향되었다.

(19) 고종 20년에 조헌과 김집이 문묘에 배향되었다.

-이상으로 동국 18현의 배향이 끝났다. -

※이중에서 굳이 해동 5현은 정, 퇴, 율, 사, 우 라고 철종조에서 화서 이항노가 말하였다.

※전제 임헌회의 오현수언에 정암의 재지, 퇴계의 덕행, 율곡의 이기, 사계의 예학, 우암의 의리를 논하였다.

충청남도 지방문화원 선진문화연수 답사기

《북해도를 다녀와서》

박 세 진
(예산문화원)

세계 20위의 경제대국, 비록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군사력 세계 7위, 정보통신 세계 1위 등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듣기만 해도 마음을 들뜨게 하는 멋진 수식어구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자주 있지는 않지만 국비지원을 통한 선진문화 연수라는 좋은 기회를 얻어 가는 이번 연수일정에 위 자문을 화두로 설정하고 연수일정의 발을 내딛었다. 2010년 지역문화경영과정과 2011년 지역문화전문가 과정에 국비연수생으로 선정되어 호주와 독일을 다녀온 경험이 있기에 문화선진국들이 자문화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하며 지역민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니즈를 어떻게 충족 시켜나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이라 지칭되어지는 나라들의 문화복지와 관련된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로 개인적인 연수 목적을 세워 보았다.

연수지는 세계 3대 축제라 일컬어지는 눈축제의 고장 일본의 북해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의 3박 4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추사가 연경에 다녀와 학문의 상아탑을 이루었다는 것을 상기하며 답사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해 본다. 단지 시기에 맞지 않아 세계적인 축제를 보지는 못했지만 눈축제를 통해 세계인을 손님으로 맞는 지역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보존해 나가며 어떻게 이용해 나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살펴 본 것은 청정지역 북해도 지역의 대표 술도가인 아사히 맥주 공장과 1930년대 세워진 닛카 위스키 공장이다. 아사히 맥주는 우리나라 마트에 가면 쉽게 눈에 띄일 정도로 유명세 있는 맥주이기에 건물과 기계가 현대화 되어있어 단순히 시음 이외의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시각이 머물지는 못했고 관람객들도 단순한 시음 외에는 발걸음이 머물지는 않았다. 그러나 닛카 위스키 공장에 도착해서는 단순한 술공장이라기 보다는 세월을 빚어 올린 듯한 돌탑과 같은 건물의 모습

에서 서양의 위스키를 일본화 시켜 100여년 가까이 같은 장소에서 술을 익히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에 매료되어 맥주공장과는 확연히 다르게 관람객의 수도 많고 사람들의 발길도 멈추게 만든다. 이런 것이 단순한 술공장과 문화가 접목되어 있는 생활문화 공장과의 차이점 인 듯 하다.



▲ 사진 1) 니카 위스키 공장
▶ 사진 2) 니카위스키 공장
▼ 사진 3) 신암양조장

비록 규모는 작지만 농심과 같이 애환을 같이 했던 남아 있는 우리 동네 술도가(신암막걸리, 덕산막걸리, 예산막걸리, 고덕막걸리)도 거대자본에 치이지 않게 보존 하면 미래에 우리문화를 기억해 나가는 좋은 매체가 되리라 본다.

다음은 이번 답사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장소로 이동해 본다. 평소에도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페러다임이 문화재생인데 문화재생을 통해 또 하나의 문화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오타루 운하지역이다 지난 2013년 월진회와 가나자와를 방문했을 당시 일정에서 잠시 빠져서 낯선 이국땅의 산업화시대의 유물인 방직공장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문화재생을 통한 구조혁신으로 시민예술촌(市民藝術村)으로 거듭났다는 정보에 겁 없이 찾아갔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제 일본에서 또 하나의 문화재생을 통해 탈바꿈된 북해도의 오타루운하 지역을 돌아본다.

물품의 보관과 이동의 편의를 위해 100여 년 전에 건설되어 삿포로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운하의 목적이 아닌 당시의 역사를 그대로 담아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되어있다. 더군다나 100년 전 이용되던 창고나 은행 등이 그대로 남아 식당이나 상점으로 그리고 지역예술가들의 문화활동공간으로 재생되어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아끈다.



▲▶ 사진 4~5) 100년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창고들



▲▶ 사진 6~7) 100년전 창고가 지금은 식당과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류의 문화를 다루는 이들만의 방법에 무엇인가 공통점이 느껴진다. 가나자와시에서 산업화시대의 방직공장을 문화재로 보존하여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민예술촌이 그러했고 은행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키타현의 향토박물관이 그러하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논산 강경이 일제강점기 은행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한 문화재생의 좋은 사례인 듯하다.



▲▶ 사진 8~9) 근대 방직공장을 재생한 가나자와시 시민예술촌



▲▶ 사진 10~11) 근대 은행건물을 재생한 아키타현 박물관(좌)과 논산강경 역사관(우)

이같이 구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만드는 문화재생의 좋은 사례를 문화재생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낙후된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쉽게 찾을 수 방안이 기존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재개발이다. 그러나 이런 재개발은 기존 도시구조를 파괴하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재생이라는 개념으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독일 베를린의 문화양조장이라는 의미의 쿨투어브라우어라이(KulturBrauerei)가 대표적이다. 지역의 양조장이 도시지역의 사양산업으로 취급되어 해체 위기에 처하면서 방치되었던 지역의 양조장 건물들을 산업화 유물로 여기고 역사지구로 지정하면서 관심을 유발하고 건물주와 문화예술가들의 민간과 역사지구로 지정하고 재생을 리딩한 행정이 재생 성공의 실마리가 되었다. 역사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거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시와 지역민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협의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쿨투어브라우어라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과거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지역산업의 산실이 사진 몇 장과 이야기거리로 구전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 과거 번성했던 도시산업화의 유물인 베를린의 한 양조장 건물과 문화공연 모습



▲▶ 역사지구로 지정하여 보존된 옛 산업화 건물을 문화시설로 리뉴얼한 쿨투어브라우저라이 내부

문화선진국으로서 독일의 이러한 면모는 곳곳에서 발견되어진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천만 관객을 모은 영화 「국제 시장」에서도 보여진 독일산업의 주축이었던 석탄산업의 메카였던 에센지역의 석탄 박물관, 2차 대전 당시 무기공장이었던 건물을 미디어센터로 개관한 ZKM 미디어센터, 넓은 화력 발전소를 리모델링한 호주의 파워하우스 뮤지엄 이들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중국의 798 예술거리등 비록 산업화시대의 흉물스럽고 낡은 잔유물이지만 이것 역시 인류 발전의 일조를 한 유산으로 여기고 문화를 통한 재생작업을 통해 재탄생 시킨 또 하나의 인류문화 유산으로 환기시키는 좋은 계기로 만들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과 결부시킴으로서 일반 시민과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기존의 쇠퇴했던 산업시설이 과거의 모습은 유지한 채 현대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 지역의 문화상업공간으로의 위상을 더불어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도 잡아 이끌고 있는 것이다.



▲ 호주시드니 파워하우스뮤지엄



▲ 중국 북경 798 문화예술 특구



▲ 석탄저장고를 전시세미나실로 이용하는 독일의 석탄박물관



▲ 무기공장을 아트센터로 재생한 독일의 ZKM 미디어센터

비록 산업화시대의 잔유물이지만 헐어버리고 번지르르하게 새것만을 고집하는 것 보다는 구시대의 잔유물일 지라도 소중히 다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후세에 남긴다는 것이 이들 선진국의 사례의 공통점인 것처럼 다가온다.

우리나라도 문화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하면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좋은 사례를 예산문화원에서도 문화답사를 통해 탐방하고 있다.



▲ 전시실로 이용되는 서울역



▲ 1928년 건립된 예전 대법원(경성재파소) 서울시립미술관

우리지역에도 한때 지역경제의 성장기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표주자인 섬유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한세대를 품어줬던 방적회사가 있었다. 아직도 그 실체는 우리 주변에 남아 속은 비어 덩그러니 땅을 지키고 있는 산업화시대의 붉은 벽돌 건물 그대로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부모세대의 상징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반문 해본다. 위에서 언급했던 유럽이나 호주, 일본에서 본 사례를 바탕으로 그 일부라도 지역민과 함께 성장기를 같이 해온 상대로서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 해보는 동시에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선진국의 사례를 시금석 삼아 그 일부라도 문화재생의 대상으로 접근 한다면 붉은 벽돌과 넓은 철문에 사람의 온기로



▲ 신례원 충남방적 건물

다시금 색감을 붙여 넣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일본 북해도의 오타루운하 지역 답사의 여운을 남겨본다.

이제 마지막 답사지로 일본 곳곳에서 우리의 지방문화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공민관으로 향한다. 기회가 되어 일본을 방문할 때는 빼놓지 않고 드려보는 곳중의 하나이다.

공민관(公民館), 일본에서 각 지역단위에 설치

되어있는 기관으로 주민을 위한 실제 생활에 입각한 교육, 학술, 문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로 일본의 교육 기본법과 사회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설치 운영되어지고 있는 229개 지방문화원과 흡사한 기관이다. 지금부터 6~7년 전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만 해도 시설과 운영면에서 현재 예산문화원과 비교했을 때 많은 열등감으로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는데 6,7년의 세월이지만 그 차이가 많이 근소해 졌음을 느낀다. 그 당시 보고 왔던 공민관의 시설과 운영 방법이 이제는 우리상황에 많이 접목되어 있어서 그러리라 본다. 지역민들이 문화욕구에 충족되기 위한 문화강좌도 대폭 늘어났고 시설면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 비록 연차별이긴 하지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보수도 수시로 진행해온 덕분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원사증축이 금년에 이루어지면 더 나은 문화환경을 지역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일본 공민관(전통무용반)



▲ 일본 공민관(생활도예반)



▲▶ 시설보완과 문화강자 확충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욕구에 충족해 나가고 있다.(예산문화원)

몇 년 전, 일본에서 보아온 문화선진국을 향한 작은 노력의 결실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진정한 선진국은 문화대국이라는 말과 같이 일신우일신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통한 문화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항상 짧은 일정으로 피조물 위주의 시각적인 관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선진문화 답사 일정이지만 한편으로는 고귀한 교훈을 남겨준다. 굴화위지(橘化爲枳) 굴이 회수를 넘으면 탕자가 될 수 있다고 했던가 바꾸어 말하면 탕자도 회수를 건너면 굴이 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다른 나라의 문화라도 잘보고 우리나라 환경에도 적정하게 적용하면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일부 직원이긴 하지만 충남지역 문화원 직원들에게 좋은 기회를 부여해준 충청남도문화원 연합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에 감사드리며 연수일정을 마무리 한다.



2015 제26회 추사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 수상작

장 원
 (문인화)



이 청옥

특별상
 (추사체)



곽재순

차 상
 (문인화)



김영수



2015 제3회 조선 4대 명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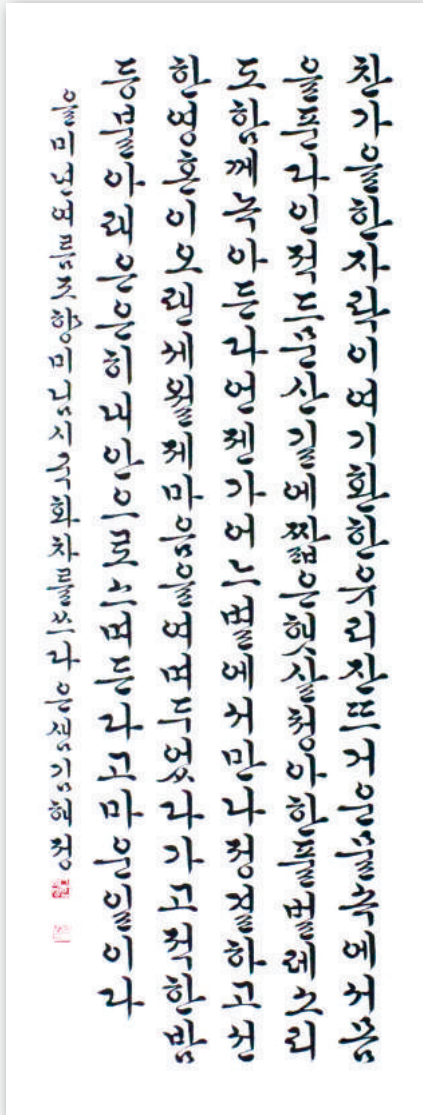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수상작

차 상
(문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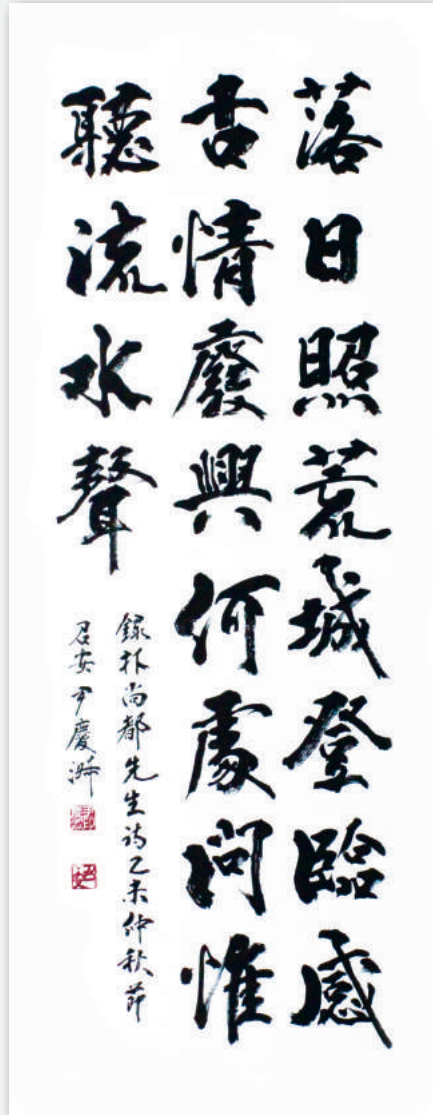
신미림

차 상
(한 글)



김해정

차 상
(한 문)



윤경숙

2015 제8회 예당호 해맞이



2015 신년교례회



2015 마을동제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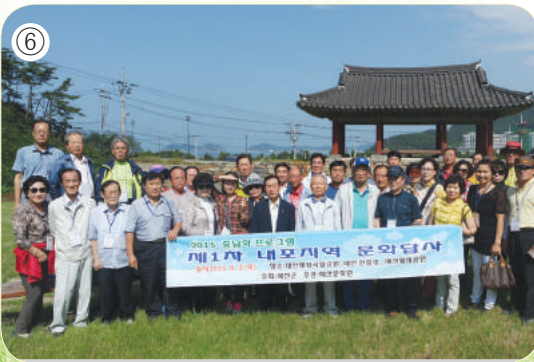
- ① 신양면 가치리 당산제
- ② 신종리 샘제
- ③ 예산읍 간양리 덕방산 산신제

영선관리사업



2015 문화답사

- ① 간송전시회 및 뮤지컬 '아리랑' 관람
- ② 전북 익산 일원 답사
- ③ 충남학 답사(경기도 파주 일원)
- ④ 추사와 다산 전시 및 뮤지컬 '갯츠' 관람
- ⑤ 충남학 답사(안동 일원)
- ⑥ 충남학 답사(태안 일원)
- ⑦ 충남학 답사(논산,계룡 일원)



운영회의



1차 이사회



2차 이사회



3차 이사회



정기총회



인사위원회



임원·자문위원 합동회의



자문위원회



제1회 예산군청소년축제
준비 관계기관회의



충남문화원과 충남문화재단
발전간담회



충남문화원발전
도지사간담회

정월대보름 달집축제



제회 예산군 청소년문화축제



지역문화학교프로그램 운영



문인화, 풍수지리, 요가, 필라테스,
어린이 발레, 난타, 한국화, 서예 등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18회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전시회



문화의 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전국서예대전 전시회

제2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제3회 자암 김구 전국서예대전



주말행복배움터사업 (튼튼속속 키즈로빅)



제26회 추사 김정희 추모 전국회화대회

회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





예산읍 추사의 거리 추사학당 개강



충남학 인문강좌운영



코엑스 공예트렌드페어 황충길 옹기 전시





효행장학금 수여식



전국문화원직원 연수개최(덕산 스파캐슬)



어린이 영화 상영



풀뿌리 자치언론문화부문 특별상 수상



예산문화원은 지역주민 및 출향인들과 함께 합니다.



예산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신년교례회 및 전시회, 공연들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예산문화원은 이 숲에 물과 거름이 되려 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예산군민과 출향인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산문화원은 지역주민 및 출향인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 2015년 문화발전기금 납부자 ◎

그린지물아트 신레원새마을금고 윤상구 박철원 이완호 황충길

※보내주신 회비 및 기부금은 조세제한 특례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0조에 의거 기부금으로 손금처리 되며, 예산의 문화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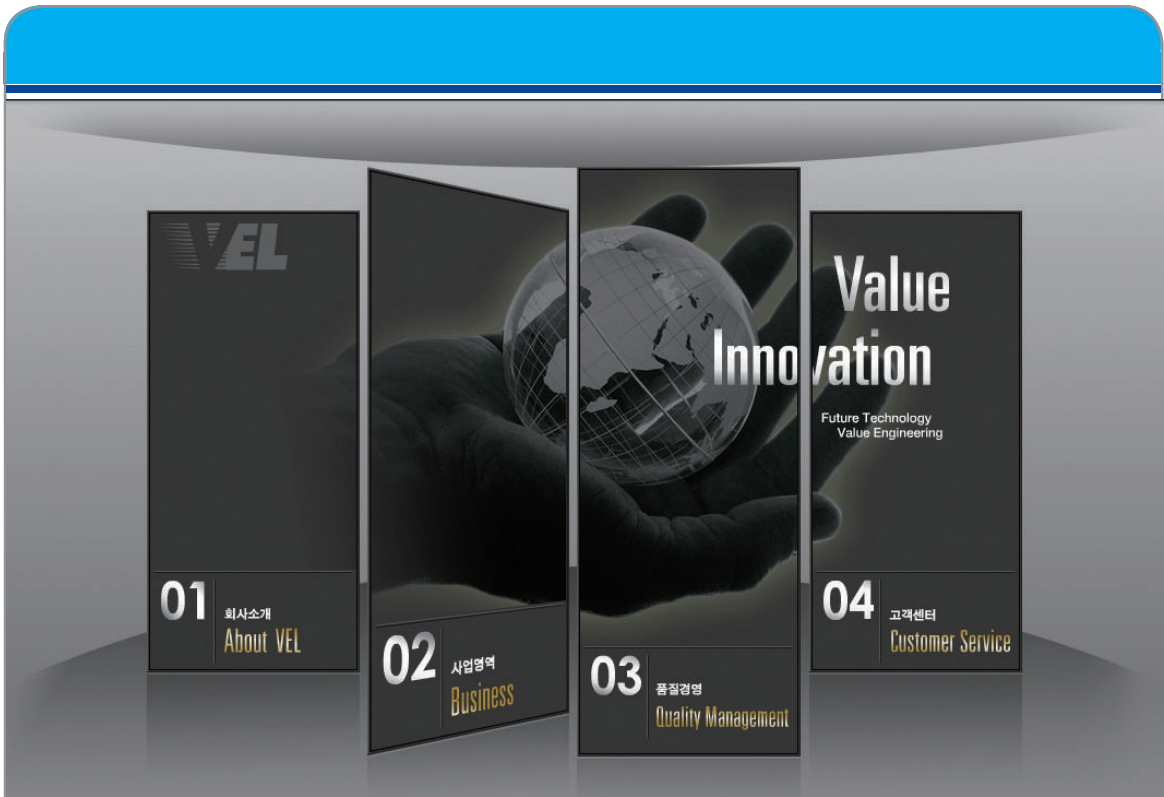
보내주실 곳 : 국민은행(예산문화원) 463901-04-161758

예산문화원 역대 문화원장 (1955~현재)

1대	장영복 원장 (1955.10.15~ 1957.12.31)
2대	김경환 원장 (1958.01.01~ 1961.12.31)
3대	박병선 원장 (1962.01.01~ 1963.12.31)
4대	장영복 원장 (1964.01.01~ 1965.05.24)
5대	서창재 원장 (1965.05.25~ 1978.02.28)
6대~10대	이항복 원장 (1978.03.01~ 1995.07.16)
11대~12대	이지호 원장 (1995.07.17~ 2004.11.11)
13대	이진자 원장 (2004.11.12~ 2006.06.30)
14대	이용면 원장 (2006.07.01~ 2008.11.10)
15대~16대	김시운 원장 (2008.11.11~ 현재)

예산문화원 조직도





“BEST VALUE, FIRST VALUE”

(주)밸류엔지니어링은 반도체 Ion implanter 설비 부품을 중심으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 기술들을 활용하여 SOLAR, LED, LCD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환경 및 고객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최적품질 유지를 위해 저희 임.직원 일동은 끊임 없는 개선 활동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황규태

예산문화 제49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주)밸류엔지니어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재면 제일리 640-5 TEL: 031-323-3511



4대를 이어온 전통 옹기의 名家
우리의 전통옹기를 위해 모든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전통예산옹기는

4대를 이어온 전통옹기의 명가! 대한민국 옹기 명장(98-23호)

황충길 명장이 만듭니다.



TEL. 041)332-9888

예산문화 제49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산업용 탈취제

· odor-kill 충남대리점 ·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대산산업주식회사

대표 신 창 균

무료상담전화 010-6633-8123

예산문화 제49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예림안길 34-32 Tel. (041)332-8123~4

예산능금농협

우리 임직원 모두는 조합원 및 고객님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적극적인
보살핌에 힘입어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갈 협동조합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인 중 열

예산문화 제49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860

TEL. 041)332-3506~9 FAX. 041)333-2263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예산문화원은 지역주민 및 출향인들과 함께 합니다.

예산문화원보 / 비매품 (통권 제49호)

발행인 김시운 발행처 예산문화원(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번지) 발행일 2015년 12월
전화 041)333-2441, 335-2441 팩스 041)334-4330 홈페이지 <http://yesancc.or.kr>
기획 및 편집 박세진 행정지원 김상희, 이다연 디자인/인쇄 디자인나무 041-334-1033

※ 본 책자는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